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연구

- 일상적 글말 텍스트 장르 분석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남 신 혜

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연구

- 일상적 글말 텍스트 장르 분석을 중심으로 -

지도 강 현 화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남 신 혜

남신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인

심사위원___________________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년 6월 일

차 례

표 차례 ············ iii
그림 차례 ············ v
국문 요약 ············ vi
제1장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2 논의의 구성 ············ 4
제2장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 5
2.1 중화체에 관련된 선행 연구 ············ 5
2.1.1 문장종결법 및 문체법에 대한 연구 ············ 5
2.1.2 중화체에 대한 연구 ············ 8
2.2 텍스트 장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 14
2.2.1 텍스트 장르의 개념 ············ 15
2.2.2 텍스트 장르의 분류 ············ 18
2.2.3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 ············ 26
제3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30
제4장 중화체 문장종결형의 형태별 분석 ············ 35
4.1 형태별 정량적 분석 ············ 35
4.2 형태별 세부 분석을 위한 문장종결형의 분류 ············ 38
4.3 형태별 세부 분석 ············ 41
4.3.1 '-(는/ㄴ)다' ············ 42
4.3.2 서술명사, '-(으)ㅁ', '-어/아/여' ············ 45
4.3.3 '-기', '-(으)ㄹ 것', '-도록' ············ 53
4.3.4 '-(으)라', '-(느)ㄴ가?', '-나?' ············ 60
4.4 형태별 분석의 함의 ············ 65

제5장 일상적 글말 장르에서의 중화체 분석 ··· 69
5.1 장르별 정량적 분석 ··· 69
5.2 각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 ··· 74
5.3 텍스트 장르별 세부 분석 ··· 77
5.3.1 신문 표제 ··· 77
5.3.2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 80
5.3.3 공지사항 게시글 ··· 84
5.3.4 계약서 ··· 87
5.3.5 일기 ··· 90
5.3.6 법률 및 규칙 ··· 93
5.3.7 공문 ··· 96
5.3.8 매뉴얼 ··· 99
5.3.9 업무 문서 ··· 101
5.3.10 프레젠테이션 자료 ··· 104
5.4 장르별 분석의 함의 ··· 106
제6장 결론 ··· 110
참고 문헌 ··· 114
영문 요약 ··· 119

표 차례

<표 1> 문장종결형에 따른 문법 체계의 분류 ………………………… 6
<표 2> 텍스트와 담화의 개념 ………………………………………… 16
<표 3> Sandig(1972)의 텍스트 장르 분류 ………………………… 19
<표 4> Grosse(1976)의 텍스트 장르 분류 ………………………… 20
<표 5> 강범모·김흥규·허명희(1998)의 문어 텍스트 장르 분류 ………… 22
<표 6> 민경모(2000)의 문어 텍스트 장르 분류 ……………………… 23
<표 7> 고영근(2002)의 텍스트 장르 분류 ………………………… 24
<표 8> 서상규·한영균(1999)의 일차적 장르 분류 ……………………… 24
<표 9> 서상규·한영균(1999)의 글말 텍스트 장르 하위 분류 …………… 25
<표 10> Biber(1988)의 글말 텍스트 장르 분류 …………………… 25
<표 11> 텍스트의 문체 선택 자질 ………………………………… 29
<표 12> 텍스트 장르 구성과 해당 말뭉치 규모 ……………………… 30
<표 13> 말뭉치 자료의 출처 …………………………………………… 32
<표 14> 말뭉치 추출 문장종결형의 분류 …………………………… 36
<표 15> 전체 텍스트에서의 문체별 빈도수 및 비중 ………………… 36
<표 16> 중화체 종결형들의 빈도수 및 비중 ………………………… 37
<표 17> ‘-(으)ㅁ'과 ‘-기'의 차이 ………………………………… 53
<표 18> 텍스트 장르별 각 문체의 빈도수 및 비중 ………………… 70
<표 19>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가 사용되는 정도 ………………… 72
<표 20> 텍스트 장르별 중화체 종결형의 분포 ……………………… 72
<표 21> 중화체 종결형의 장르별 분포 ……………………………… 73

<표 22> 장르별 문체 선택 자질 ·· 77
<표 23> 업무 문서의 종류 ·· 102
<표 24> A기업의 교육용 문서에서 발췌한 업무 문서 작성 요령 ·········· 104

그림 차례

<그림 1> (Heinemann & Viehweger, 1991)의 텍스트 장르 분류 ········ 21
<그림 2> 중화체 문장종결형과 문장 유형································ 66

국 문 요 약

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화계가 중화되어 나타나는 문체인 중화체에 대한 연구이다. 흔히 한국어의 문장종결형에는 일정한 화계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중의 문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다수의 텍스트들에서는 화계가 중화된 문장종결형의 쓰임이 많다는 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첫째, 중화체를 표현하는 형태들이 갖는 통사적 특징과 의미론적 특징을 기술하고 이들을 각 문장의 유형별로 목록화하여 문체법의 하나로서 중화체의 체계를 세운다. 둘째, 장르별로 중화체의 사용 빈도 및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중화체가 주로 쓰이는 장르를 밝히고 그 담화상의 특징을 아울러 밝힌다.

이를 위하여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논의의 순서를 제시한 후에 2장에서는 관련된 분야의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 장르의 말뭉치 자료 및 그 분석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텍스트 장르별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가 4장과 5장에 기술되었는데 4장에서는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를, 5장에서는 장르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먼저 4장의 형태별 분석에서는 중화체를 이루는 문장종결형을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후 각 형태의 빈도에 따른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고, 각각의 형태의 의미 기능 및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 결과 말뭉치 자료의 전체 종결형의 빈도 중에서 중화체 종결형의 빈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나타나 중화체가 한국어의 문체법의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장 유형별로는 평서형에 '-(는/ㄴ)다', 서술 명사, '-(으)ㅁ', '-어/아/여'가 할당되었으며 의문형에는 '-(느)ㄴ가', '-나'가, 그리고 명령형에는 '-기', '-(으)ㄹ 것', '-도록', '-(으)라'가 각각 대응되었다. 또한 특수한 기능의 명령형으로 지시명령문을 별도로 두어 이를 위한 형태로 '-(는/ㄴ)다'를 할당하였다.

다음으로 5장의 장르별 분석에서는 위에서 추출한 중화체 문장종결형들이 각 텍스트 장르별로 어떠한 빈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제시한 후에 각 장르별로 중화체가 쓰이는 정도와 그 중에서도 선호되는 문장종결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 장르별로 문체 선택 자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한 후 이를 분석의 틀로 삼았다. 그 결과 각 텍스트 장르가 가지는 자질값에 따라 중화체가 나타나는 빈도와 특히 선호되는 중화체 종결형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는데, 해당 텍스트 장르의 성격이 공적일 때, 메시지의 수용자를 특정하지 않을 때, 메시지의 수용자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정도가 약할 때, 그리고 메시지 수용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지 않을 때 중화체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발견해 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였고 한국어의 문체법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제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중화체의 중요한 위상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중화체의 문장종결형의 목록을 확정하였으며 나아가 중화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텍스트 장르의 특징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 말뭉치의 장르별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중화체의 체계를 빈칸 없이 기술하기에 충분치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핵심되는 말 : 중화체, 문체법, 문장종결형, 문장 유형, 텍스트 장르, 화계, 상대높임법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까지 한국어의 문장 유형, 혹은 문장종결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형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문장종결 자리에 오는 형태들의 의미와 기능을 규정하고 이를 각각의 문장 형식에 대입하여 설명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규정하고 각각의 문장 유형이 갖는 고유한 의미 기능을 표현해 주는 형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인 한국어의 특징상, 문장종결 자리에 오는 형태들은 기존의 한국어 문장 유형에 대입되어 일갈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다양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하나의 형태가 상이한 문장 유형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문장종결법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통사론의 차원에서 보자면, 문장종결 자리에 오는 형태들은 문장을 끝맺음과 동시에 해당 문장의 유형을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평서형 어미로 이야기되는 '-(는/ㄴ)다'가 오면 해당 문장은 평서문이 되지만, 종결어미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똑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문장종결 자리에 의문형 어미로 규정되는 '-(느)냐'가 오면 해당 문장은 의문문이 된다.

그런데 문장종결형은 그것을 통해서 해당 문장이 다른 문장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위치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통사론의 범위를 벗어나 담화 및 텍스트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다. 고영근(1976)에서는 문장종결법이 실현되는 장면을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으로 나눔으로써, 문장종결법을 화자와 청자, 혹은

필자와 독자 사이에서 실현되는 문법 범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김주미(1992:317)에서는 '문장종결형은 문장의 범위를 넘어 담화의 세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하나의 문장종결형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석민(1995:263)은 '문장종결형은, 그 문장으로 표현되는 내용이 구체적인 담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의 결과임을 드러내주는 요소이며, 따라서 이들은 언어외적인 담화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장종결형 중에서도 일반적인 문장종결형들과 달리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하는, 다시 말해 이른바 무화계체에서 사용되는 형식들은 담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장종결형들은 해당 담화나 텍스트의 맥락이나 장르적 변이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하는 장르 의존적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과 같은 문장들에서 모두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다.

(1) 가. 감가상각은 고정성 경비의 성격을 갖고 있음.
    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
    다. 프랑스어 자격증 따기.
    라. 금주 중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
    마. 현재 인원을 보고하도록.
    바.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사. 이 내규는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
    아. 물을 붓고 3분간 더 끓인다.
    자. 봄의 푸르름을 새기다.
    차. 주목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한국어의 문장종결형들은 문장의 유형을 규정하는 기능과 동시에 상대높임법의 화계 등분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위의 예문과 같은 문장들은 그 화계가 중화되어 있어 어떠한 화계를 표현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들을 화계가 중화되었다는 점에서 '중화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중화'라는 용어는 주로 음운론적 현상의 하나를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혼란의 여지가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남기심(1973)에서 내포절의 종결부에 대하여 '중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고 남기심·고영근(1985/1993:356)에서도 (1바)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 '(이들은) 중화명령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형태의 중화뿐 아니라 의미의 중화까지도 가리킨다'고 서술한 바가 있으므로 화계가 '중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그러한 문장을 '중화문'이라고 지칭하는 일이 아주 낯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화문'이라는 용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의 문장 유형을 일컫는 용어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고, 이들 문장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체법적인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용어를 문체법의 입장에서 수정한다면, '중화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화체 문장종결형들은 화계의 등분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장종결법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던 형태들과 다르며, 따로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 각각의 통사적 제약이나 특성, 그 의미 기능을 밝혀 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체법 체계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특정 장르에 편향되어 사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텍스트 장르별로 그 사용 빈도 및 양상을 살펴보아 장르 특정적인 성격을 밝혀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표는 아래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화체를 표현하는 형태들이 갖는 통사적 특징과 의미론적 특징을 기

술하고 이들을 각 문장의 유형별로 목록화하여 한국어의 특징적인 문체의 하나로서 중화체의 체계를 구상해 본다.

둘째, 장르별로 중화체의 사용 빈도 및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중화체가 주로 쓰이는 장르를 밝히고 그 담화상의 특징을 아울러 밝힌다.

1.2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자세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중화체와 관련된 선행 연구와 텍스트 장르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1] 다음으로 3장에서는 1장에서 밝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2장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 대상 말뭉치를 세우고 이에 따른 연구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중화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이다. 먼저 4장에서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각각의 중화체 종결형들에 대하여 세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5장에서는 장르를 기준으로 삼아 각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의 출현 빈도 및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낸 사실에 대한 의의와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기로 한다.

1) 텍스트 장르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자들마다 텍스트 장르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유형화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중화체에 관련된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중화체와 관련하여 국어학계, 혹은 한국어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중화체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특수한 문체 유형의 하나이며 문장종결형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화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서는 먼저 한국어의 문장종결법 및 문체법에 대한 연구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절에서는 먼저 문장종결법 및 문체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면면을 살펴본 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절에서 중화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2.1.1 문장종결법 및 문체법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 문장 유형이 나타내는 문법 범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로는 이제까지 크게 문체법· 서법· 의향법· 문장종결법 등이 있었다.

먼저 고영근(1974)에 따르면, 문체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상의 방법으로, 의지적 서법을 표시하는 의문법, 명령법, 허락법, 공동법, 약속법, 경계법 등이 문장종결형에서 표시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문체법의 일부가 서법 범주를 표시한다고 본 것이었는데, 이와는 달리 임동훈(2011)에서는 한국어의 종결어미가 나타내는 문형이 모두 서법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서법 범주에는 일정한 문법 형식으로 표시되는 화행 표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가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허웅(1983)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의 유무나 요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의 문장종결법을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꾀임법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의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문장종결법을 의향법을 실현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용어 사용의 문제만큼이나, 한국어의 문장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시각 역시 다양하다. 예를 들어 고영근(1974)이나 윤석민(2000)과 같은 논의에서는 종결형 '-(으)마'에 의해 종결되는 문장을 약속법이라고 하여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는가 하면, 남기심(2001)에서는 '-(으)마'를 평서형 어미의 범주 안에 편입시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장종결법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장종결형에 따른 문법 체계의 분류

선행 연구	문법 범주	종류
최현배(1937)	월의 갈래	베풂월, 시킴월, 물음월, 꾀임월
남기심·고영근 (1985/1993)	문장 유형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고영근(1974)	문체법	설명법, 약속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허락법, 공동법, 경계법
남기심(2001)	의향 서법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허웅(1985)	의향법	들을이에게 요구 없음: 서술문 들을이에게 요구 있음 : 대답을 요구 - 물음법 : 행동을 요구 - 시킴법, 꾀임법
임동훈(2011)	서법	서실법(평서문, 의문문), 서상법(명령문, 청유문)
윤석민(2000)	문장종결법	설명법, 감탄법, 의문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명령법, 공동법

이처럼 한국어의 문장 유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어미가 발달한 한국어의 특징상 매우 다양한 형태들이 문장종결 자리에 나타나고 그들의 용법이나 기능 또한 다양하여 이들을 일갈하여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어에서 문장종결형은 대우법의 등분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하는 일정한 문체를 만들어내어, 텍스트들 간의 문체적 차이를 특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체법의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 또한 제기된다. 예컨대 한국어의 문장은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등의 문장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 등으로 역시 나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장종결형을 문체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본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고영근(1976)이 있다. 고영근(1976)에서는 문체법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상황에 따른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단독적 장면의 문장종결형은 어떤 문장종결형을 선택할지의 문제가 전적으로 화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전형적으로 문체법의 소관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체는 언어의 사용 맥락이나 장르적 변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장경희(1994)는 이러한 점을 포착하여 각 텍스트 유형은 고유한 문체를 지닌다고 한 바 있으며, 강범모 외(1998)에서는 문체를 언어 사용 상황을 반영한 언어 특성의 집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문체가 언어의 사용 맥락, 즉 장르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특정 문장종결형의 특성을 밝히고 기술하는 일은, 그 형태들이 주로 나타나는 텍스트 장르와 함께 고려할 때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특정한 종류의 문장종결형들은 비록 그 기원은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 다 화계가 중화되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르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못하기도 할 가능성이 크다. 독자나 청자가 특정적이어서 양자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 화계가 반드시 언어 형식에 반영되어야 하는 장르일 경우에는 이렇듯 화계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장종결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화체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텍스트 장르에 대한 관찰과 맞물려야 함을 알 수 있다.

2.1.2 중화체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연구는 문장 유형이나 문장종결 형식, 또는 문체법에 대한 일부 논의들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을 뿐, 본격적인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용어에 관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본 연구에서 '중화체'라고 이름 지은 해당 문체에 관한 특정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중화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의 예문에서 소개한 종류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문장에 대한 용어로는 먼저 남기심·고영근(1985/1993:357)에서 소개한 '하라체'가 있다. '하라체'는 평서문에 '-(는/ㄴ)다', 의문문에 '-(느)냐', '-(느)ㄴ가,나', 명령문에 '-(으)라', 청유문에 '-자'를 각각 문장종결형으로 가지는 것으로 빈칸 없는 하나의 문체법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화계의 측면에서 이들과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으)ㅁ'이나 '-(으)ㄹ 것' 등의 명사형 종결형이나 '-어/아/여' 연결어미에 의한 종결형 등을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홍빈(1983:132)에서는 절대어간에 직접적으로 평서법 어미 '-

다'와 명령법 어미 '-라'가 연결된 형식의 서술어를 가지는 문장을 가리켜 '절대문'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절대문'에는 평서법과 명령법의 두 가지 문장만 속하는데 전자는 이 둘을 아우르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 '절대문'이라고 하였고 후자는 '절대 명령문'이라고 칭하였다. 이 절대문의 체계 내에서 '절대 명령문'이라 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하라체'의 체계에서 명령법을 차지하는 문장인 '간접 명령문'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임홍빈(1983)에서 '절대문'이라 한 것에 대하여 곽용주(1996)에서는 '부정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어의 'infinitive'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이 역시 화계의 중화를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대문'이나 '부정법'이라는 용어는 시제 형태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아울러 규정하고자 하는 여러 문장종결형들로 이루어진 문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적절치 못하다. 본 연구의 대상 문장들은 그 문장이 진술하고자 하는 것의 '절대성' 내지는 시상이나 양태의 굴절을 거치지 않은 '절대어간'의 상정에 관한 문제보다는 해당 문장이 표현하는 화계적 정보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기심(1973:79)에서는 내포절에 대한 논의에서 내포절은 상위문에 내포되기 위하여서 해당 서술어가 지녔던 서법어미의 상대존대 등분이 '중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2] 또한 상대존대가 중화된 종결어미는 서술형은 '-다', 의문형은 '-냐'를 기본형으로 삼고 형태음운변동에 따른 이형태가 있다고 하였으며 명령형은 '-(으)라', 청유형은 '-자'가 된다고 하였다. 남기심(1973)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대존대의 중화'라는 개념은 본 연구에 있어서는

2) 남기심(1973)에서는 내포절의 서술어가 종결어미까지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완형보문'과 '불구보문'을 분리하여 상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완형보문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설명은 완형보문을 위한 '직접인용절의 간접화규칙' 부분에서 제공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장들은 그 서술부의 종류가 완형보문과 유사한 것도 있고 불구보문과 유사한 것도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는 통상적인 개념인 '내포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내포절의 종결부가 아닌 상위문의 종결부에 적용된다는 것이 다를 뿐, 화계가 형태적·의미적으로 중화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관점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하라체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고영근(1976:35)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과 동일선상에서 '하라체는 존비법이 중화된 형식으로서 존비법 형식의 중화는 존비의식의 중화까지도 초래하는 것이다'라는 기술을 함으로써 '중화'라는 용어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의 관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인 '화계의 중화'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화계가 중화되어 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문장들의 문체에 대하여 '중화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다음으로는 비록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다르더라도 중화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선행 연구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 문체의 형태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보다 좁은 범주의 몇몇 형태들에 대하여서는 부분적으로 언급된 연구들이 있었다.

먼저 임홍빈(1983)에서는 '-시-'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고 어간에 바로 붙는 종결어미 '-다'에 의한 문장을 '절대문', '-라'에 의한 문장을 '절대 명령문'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세계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발화 장면에서의 구체적인 화자와 구체적인 청자 사이에 오고가는 담화 형식의 문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 문장은 공손법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공손법에 상대하여 '비공손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상대높임법의 화계가 특정되지 않는 중화체의 성격을 잘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공손법'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문에서 (1바)와 (1자)와 같은 문장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중화체를 나타내

는 다양한 형태들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상이나 양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취하지 않는다는 절대문의 특징이 화계가 중화되어 나타난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문에 대한 설명은 해당 문장이 나타내는 화계에 대한 문제보다 시제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달아 임홍빈(1984)에서는 '비본래적인 문장종결 형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경우 수행 억양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억양이 수반되지 않는 텍스트에서 글말로 사용되는 비본래적인 문장종결 형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하였다.

박금자(1987)에서는 국어의 명령 표현을 '명령문, 명령법 종결어미가 아닌 어미가 이용된 명령, 명령의 간접 화행문' 등의 세 가지로 나누고 '-도록'과 '-ㄹ 것'을 명령 표현의 어미로 기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갖는 중화체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피지 못하였고 이 두 형태를 명령형 어미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특정한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대높임법이 설정되기 어려운 경우인 단독적 장면에서 쓰이는 '하라체'로서, 평서문에 '-(는/ㄴ)다', 의문문에 '-(느)냐, -(느)ㄴ가, -나', 명령문에 '-(으)라', 청유문에 '-자'가 있다고 하였다. 특정한 청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대 높임법의 설정이 어렵다고 한 단독적 장면의 성격은 중화체의 성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자가 지시적이지 않은 단독적 장면이라고 해도 모든 글말 텍스트 장르에서 중화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단독적 장면과 중화체가 사용되는 장르는 꼭 같다고 보기가 어렵다.

한편, 김일환(2005)과 김일환·박종원(2003)에서는 명사형 어미에 대해 다루면서, 문장종결 자리에 나타나는 명사형 어미 '-(으)ㅁ, -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두 논의에서는 모두 '-(으)ㅁ'은 평서형에서, '-기'는 명령형에서

사용되며 이는 '-(으)ㅁ'과 '-기' 자체가 가지는 의미적인 기능에 기인한 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밖에도 명사형 어미의 쓰임을 다루면서 간혹 문장종결 자리에 오는 '-(으)ㅁ, -기'에 대하여 소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은 꽤 있는 편이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모두 '-(으)ㅁ'과 '-기'의 의미상 차이를 밝히기 위한 논조의 일환으로서 문장종결 자리의 '-(으)ㅁ, -기'가 언급되고 있는 탓에 이들이 갖는 문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이다.

한편 김태엽(1998)에서는 종결어미의 형태를 이루는 어미구조체에 본디부터 문장 종결소가 있고 없음에 따라 '갖춘 형태'와 '못갖춘 형태'로 분류한 후에, '못갖춘 형태'는 다시 기능 변동 형태와 기능 전용 형태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이 기능 전용 형태에 '-거든, -니까, -기, -음' 등을 포함시켰으며, 기능 전용 형태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분석을 통해 청자높임법의 등급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비슷한 논의로 권재일(1986)에서는 연결어미 '-는데, -거든'과 명사화 내포어미 '-(으)ㅁ, -기' 등이 마침법으로 전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기능이 전용된 문법 형태소로 분류하였다.

김태엽(2000)에서는 김태엽(1998)의 논지를 이어서 종결어미를 갖춘형태와 못갖춘형태 등으로 구분짓고, '-(으)ㅁ, -기, -(으)ㄹ 것' 등의 종결어미화를 문법화로 파악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거든, -니까, -는데' 등의 경우와 '-(으)ㅁ, -기' 등의 경우, 그 형태들이 사용된 문장의 문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 전자는 주로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반말체인데 비해 후자는 화계를 설정하기 어려우며 주로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논의들 역시 해당 형태에만 집중하여 그들의 문체적인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태 중심적 접근이 아닌, 문장종결법의 전반적인 체계 내에서

중화체의 형태들을 다룬 논의로는 윤석민(2000)이 있다. 윤석민(2000)에서는 전성어미를 이용한 설명법 문장종결형 중 하나로 '-(으)ㅁ'을 들면서 청자를 구체적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정보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록'이나 '-(으)ㄹ 것'을 이용한 명령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청자에 대한 요구가 공식적인, 혹은 격식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윤석민(2000)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언급은 이들이 실제로도 공식성과 격식성을 띤 장르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윤석민(2000)과 유사하게 임동훈(2011)에서는 한국어의 문장 유형을 분류하면서 '개별화되지 않은 청자에게 쓰이는 문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이때 소개된 문장종결형으로는 평서문의 '-(는/ㄴ)다'와 의문문의 '-(느)ㄴ가', 명령문의 '-(으)라'의 세 가지가 있다. 청자를 특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화계가 중화된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면, 임동훈(2011)에서는 이들 세 요소를 중화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의 관점에서 중화체를 가장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장경현(2010)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문장종결 형식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를 아우르는 것으로 '문장 종결부'를 상정하고, 문장 종결부에 나타나는 문체 유형 중의 하나로 '특수 문체 유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 대상인 중화체는 이 '특수 문체 유형'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학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쓰기 교육의 내용학 분야에서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함계임(2009)이 그것인데, 여기에서는 보고서· 품의서· 협조문· 시말서· 사직서 등의 업무 문서의 문체를 분석한 결과, 명사형 전성어미와 '-(는/ㄴ)다'가 주로 문장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였다. 업무 문서는 윤석민(2000)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식성, 격식성'과 일맥상통하는 장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중화체가 갖

는 특정한 의미 기능을 공적인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중화체 문장을 만들어내는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몇몇 형태들에 대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있었을 뿐, 중화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갖는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존대법의 존재이며, 그 중에서도 다양한 문장종결형들이 높임의 등분을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의 독특한 점이라는 전통적인 논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사소통의 장면들에서 언제나 화자와 청자와의 개별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입말이 아닌 글말에 의해 표현되는 대부분의 텍스트 장르에서는 사적인 편지나 이메일 등의 몇몇 장르를 제외하고는 화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2.2 텍스트 장르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화체 문장종결형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 형태들이 주로 나타나는 텍스트 장르의 특성에 대한 관찰과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중화체 문장들의 분포나 의미, 그리고 각 문장종결형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타당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트 장르들 중에서 어떠한 장르를 연구의 자료로 삼을 것이냐 하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 및 '텍스트 장르'의 개념 규정이나 텍스트 장르의 분류 및

유형화에 대한 시각은 선행 연구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 장르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 장르별 말뭉치를 선정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장르의 개념 및 그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2.1절에서는 먼저 텍스트 장르의 개념을 설명한 뒤 2.2.2절에서는 텍스트 장르의 분류 기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선행 연구들에서 해당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장르를 구분하였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2.2.3절에서는 텍스트 장르별로 문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각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2.2.1 텍스트 장르의 개념

'텍스트 장르(text genre)'의 개념은 '텍스트', 혹은 '담화 장르' 등의 개념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용어의 사용 및 개념 규정이 학자들마다 상이하며 뚜렷한 개념 규정 없이 혼동되어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텍스트(text)'의 개념과 '담화(discourse)'의 용어 사용 행태를 살펴보는 데에는 안병길(2002)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병길(2002)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텍스트(text)'라는 용어만을 사용한 것과 '담화(discourse)'라는 용어만을 사용한 것, 그리고 이 둘을 구분지어 사용한 것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텍스트' 혹은 '담화' 둘 중의 하나의 용어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둘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하였다. '텍스트'와 '담화'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둘 중 하나의 용어만을 사용한 연구들보다는 후에 등장하였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텍스트'와 '담화'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상보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텍스트와 담화의 개념 (안병길, 2002:249)

Widdowson, 1979:90	텍스트는 결합된 문장, 담화는 결합된 문장들의 사용.
Van Dijk, 1979:472	텍스트라는 용어는 보통 담화라고 부르는 것의 기저가 되는 추상적인 이론적 개념물이고, 담화라는 용어는 관찰 가능하고, 직관적이며 일상적인 용어이다.
Coulthard, 1977:6	문장은 텍스트를 형성하기 위해 결합되고 발화는 담화를 구성한다.
De Beaugrande, 1984:36	텍스트는 자연발생적인 언어 표상, 즉 맥락에서의 의사소통적 언어 사건이라면, 담화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텍스트이다.
Brown & Yule, 1983:1	담화는 사용상의 언어(language in use)이며 텍스트는 담화의 표상(representation)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의 언어적 기록이다.
Enkvist, 1989	텍스트는 맥락 없는 담화에 해당된다면, 담화는 그 상황적 맥락이 포함된 텍스트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텍스트’와 ‘담화’의 개념을 달리 규정한 학자들의 경우 각자의 논거 안에서 이들 용어들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담화’와 ‘텍스트’의 구분에 있어서 통일된 하나의 견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이야기'라는 개념을 상정하면서, 이는 '담화'의 '화(話)'에 해당하기도 하고 '텍스트'의 개념과 유사하기도 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화맥'과 '문맥'을 각각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을 통해 보건대 입말의 발화를 그 맥락과 함께 엮은 것을 '화맥'으로, 글말의 부려 쓰인 것을 그 맥락과 함께 엮은 것을 '문맥'으로 규정하고, 이를 묶어서 '이야기'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과 보조를 맞추어 그동안 국어학계, 혹은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편의상 '담화'는 입말로 된 문장 이상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텍스트'는 글말로 된 문장 이상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입말과 글말의 특성이 확연히 달라 이 둘을 먼저 구분 지을 필요가 매우 크며, 따라서 이들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를 달리하는 것이 논의에 편의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3] 이는 중화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입말 환경에서는 독백을 제외하고는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해야 하거나, 중화시켜 표현해도 괜찮은 장면이 거의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예컨대,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신호의 집합 전체(Kallmeyer et al, 1980)'라는 식의 광의적 개념이 아닌 '글말로 된 문장들로 구성된 담화의 덩어리로서의 문서'를 부르는 협의적 개념으로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장르(genre)'의 개념이다. '장르'는 '특정 의미 내용, 참여자, 사용 기회 등에 의해 일정하게 특징지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의 종류'라고 이해된다. '장르'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들을 살펴보면, Swales(1990)는

3) Brown, H.D.(2000)은 입말의 특성으로 '무리 짓기, 중복성, 축약형의 사용, 수행 변인, 구어체의 사용, 발화 속도, 억양 및 강세, 상호작용' 등을 들고, 글말의 특성으로 '불변성, 산출 시간의 소요, 글쓴이와 독자와의 거리, 철자, 복잡성, 다양한 어휘, 형식성' 등을 들면서 입말과 글말의 특징을 구분한 바 있다.

‘장르란, 특정 의사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활동의 종류’라고 하였고, Ferguson(1994)에서는 ‘의미 내용, 참여자, 사용 기회 등에 의해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다른 장르와는 구별된 하나의 동질화된 내적 구조로 발전하는 메시지 유형’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텍스트’와 ‘장르’의 개념을 통하여 이제 ‘텍스트 장르’의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텍스트 장르’는, ‘글말로 된 의사소통 신호들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서 다른 텍스트들과 구별된 하나의 동질화된 내적 구조로 발전하는 특정 메시지 유형’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2.2.2 텍스트 장르의 분류

텍스트 장르에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이들을 나누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텍스트 언어학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장르 구분에 대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연구는 실제 텍스트들을 수집하여 얻어진 말뭉치 자료를 귀납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중화체에 대한 실증적 기술을 하는 연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떠한 텍스트를 어떠한 장르로 묶느냐에 따라서 해당 텍스트에 대한 관찰에 기반을 둔 본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텍스트 장르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텍스트 장르의 분류에 대한 서구의 연구는, 분류를 위한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Heinemann, Viehweger(1991)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텍스트 장르의 분류에 대한 연구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지은 바 있다.

먼저 초기의 텍스트 장르 분류는 텍스트 자체의 문법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텍스트 장르의 분류는 언어학의 지배적인 이론적 방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1970년대 초반에 Sandig(1972)가 시도한 자질에 따른 텍스트 분류를 예로 들 수 있다. Sandig(1972)는 변별적 자질로서 텍스트의 시작 형식과 끝 형식, 시제 형식 등의 문법적 특성 뿐 아니라 입말인지 글말인지의 여부, 의사소통 파트너의 유무 등과 같은 텍스트 외적 특성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목적이나 기능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뒤이어 등장한 기능주의적 이론들과 구분되는 초창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Sandig(1972)의 텍스트 장르 분류
(Sandig,1972; Heinemann&Viehweger,1991/2001:177에서 재인용)

	입말	즉흥성	독화성	대화적텍스트형식	공간적교류	시간적교류	음성적교류	텍스트시작형식	텍스트끝형식	거의정해진텍스트구성	주제확정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명령형식	시제형식	경제적형태	잉여성	비언어적인것	대등한의사소통파트너
인터뷰	+	±	−	−	±	+	+	±	±	−	+	+	+	+	±	±	±	±	+	−
편지	−	±	±	−	−	−	−	+	+	−	±	+	+	+	±	±	±	±	+	±
전화통화	+	±	−	−	−	+	+	+	+	−	±	+	+	+	±	±	±	±	±	±
법조문	−	−	+	−	−	−	−	+	+	−	+	−	−	+	−	−	−	−	+	−
처방전	−	−	+	−	−	−	−	+	+	+	+	−	−	−	−	−	+	−	+	−
요리법	±	−	+	−	±	±	±	+	−	+	+	−	−	+	±	−	±	−	+	−
일기예보	±	−	+	−	−	+	±	+	−	+	+	−	−	+	−	−	±	−	+	−
부고	−	−	+	−	−	−	−	+	+	+	+	±	−	+	−	−	±	−	±	±
강의	+	±	+	−	+	−	+	+	±	−	+	±	±	−	±	±	−	±	±	−
강의록	−	−	+	−	−	−	−	±	−	−	+	−	−	+	−	−	+	−	±	+
광고	±	±	±	±	±	±	±	±	±	−	±	±	±	±	±	±	±	±	±	−
구인광고	−	−	+	−	−	−	−	+	+	+	+	±	±	±	±	−	±	−	+	−
라디오뉴스	+	−	+	−	−	+	+	+	+	−	−	−	−	+	−	+	−	±	+	−
신문기사	−	−	+	−	−	−	−	+	−	−	+	−	−	+	−	+	−	−	+	−
전보	−	−	+	−	−	−	−	+	+	−	+	±	±	+	±	−	+	−	+	±
사용설명서	−	−	+	−	−	−	−	±	−	−	+	−	±	−	±	−	±	±	±	−

토론	+	±	−	−	±	+	+	+	+	−	+	+	+	+	±	+	−	±	+	+
가족대화	+	+	−	±	+	+	+	±	−	−	−	+	+	+	±	±	±	+	±	+

이러한 텍스트 장르 분류 방법은 텍스트 고유의 특징을 나타내 주기는 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텍스트를 사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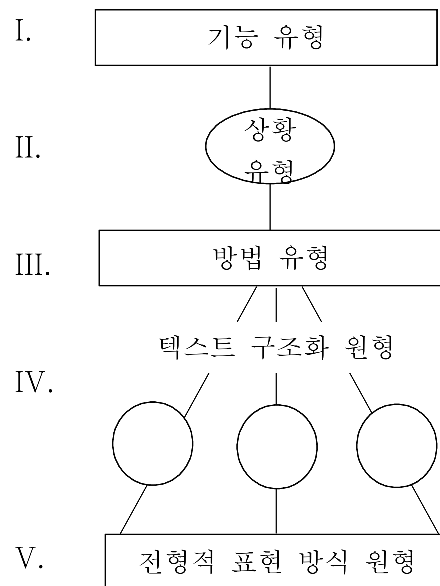
따라서 중기에는 이러한 단점을 제거하기 위해 기능적, 혹은 의사소통 중심의 텍스트 장르 분류 방법론이 대두되었다. 예컨대 중기의 연구 중에서 Grosse(1976)는 텍스트의 의사소통 기능에서 출발하여 모든 글말 텍스트를 여덟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때 '텍스트의 기능'이란, '발신자의 의도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서 한 텍스트가 수신자에게 주는 교시'를 뜻한다. 이러한 Grosse(1976)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표 4> Grosse(1976)의 텍스트 장르 분류
(Grosse,1976; Heinemann&Viehweger,1991/2001:181에서 재인용)

텍스트 부류	텍스트 기능	보기
규범 텍스트	규범 기능	법령, 정관, 위임장,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친교 텍스트	친교 기능	축하 서한, 애도 서한
집단표시적 텍스트	집단 표시 기능	집단 노래(Ex. 국가)
문학 텍스트	문학적 기능	시, 장편 소설, 희극
자기표현중심 텍스트	자기 표현 기능	일기, 전기, 자서전, 문학적 일기
요구중심 텍스트	요구	상품 광고, 정당의 계획, 언론 논평, 청원서, 신청서
중간부류	(주 기능이 두 가지임)	Ex. 요구 기능과 정보 전달 기능을 지닌 텍스트
사실정보중심 텍스트	정보 전달	뉴스, 일기예보, 학술텍스트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 중심적 방법은 텍스트가 가지는 의사소통적 목적 및 전략에 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텍스트의 고유한 언어학적 사실을 무시하게 되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었다.

한편, 최근의 다층위적 분류 방법은 각 분류 층위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델로서, 기존의 두 가지 방향의 분류 방법이 갖는 단점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층위적 분류 모델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된다(Heinemann & Viehweger, 1991/2001:192).



<그림 1> (Heinemann & Viehweger, 1991)의 텍스트 장르 분류

위의 도식을 통해서 다층위적 분류 방법은 기능· 상황· 방법· 구조화· 표현방식 등의 텍스트 내적, 외적 기준을 망라하는 방법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여러 층위들의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층위마다 세부 항목으로 무엇을 설정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황 유형'의 경우, 인간의 의사소통 상황은 무한하여서 한정하여 분

류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다층위적 방법론의 옹호론자들은 '텍스트의 유형화란 고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고정적이며 완성형에 가까운 유형화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도하였던 이전까지의 논자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떤 모범적이며 고정적인 하나의 텍스트 장르의 분류 방법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본 연구의 목표인 중화체에 대하여 잘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 텍스트 장르를 한정하는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이제까지 텍스트 장르 분류에 대한 이론가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개별 선행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텍스트 장르를 구성하고 분류하였는가? 이를 살펴보는 작업은, 실제로 텍스트 장르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이 주로 어떠한 장르들을 설정하여 분류하였는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로서 먼저 강범모·김흥규·허명회(1998)는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각 장르별 특징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입말과 글말을 망라하였는데, 그 중에서 글말 장르만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강범모·김흥규·허명회(1998)의 문어 텍스트 장르 분류

매체 장르	신문, 잡지, 책, 미출판물(개인편지)
정보전달적 장르	서평, 백과사전, 교양서적, 학술논문
예술적 장르	수필, 소설, 동화

여기에서는 장르를 크게 매체 장르, 정보전달적 장르, 예술적 장르로 나눈

것으로 보아 텍스트의 장르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 이 분류의 핵심적 기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나 백과사전, 논문 등의 이른바 '정보전달적 장르', 문학 작품으로 구성된 '예술적 장르' 모두 해당 장르의 장르 내적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관습적 특징이 강하다고 언급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이다.[4)]

민경모(2000) 역시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장르별 특성을 밝혀 보려 한 연구에 든다. 민경모(2000)에서는 언어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어말어미류의 사용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참고할만하다. 민경모(2000)에서 살펴 본 자료 중에서 글말 장르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6> 민경모(2000)의 문어 텍스트 장르 분류

신문	사설, 칼럼, 기사
잡지	서평, 취미기사, 전문기사
서적	소설, 수기, 수필, 교과서, 한국어교재, 논문, 인문사회교양, 자연과학교양
미출판물	공적 작문, 편지, 전자 우편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장르가 신문, 잡지, 서적, 미출판물 등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해당 텍스트가 전달되는 경로, 즉 매체가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영근(2002)에서는 브링커가 나눈 텍스트의 기본 기능, 즉 '제보· 호소· 책무· 접촉· 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화행을 기준으로 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하위 부류로 매체를 기준으로 한 텍스트 유형, 즉 '발

4) 이때 장르 내적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관습이란 주로 문체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것이다. 장르 문체(Gattungsstil)란, 원래 문학에서 사용되던 개념으로 예컨대 희곡에서 막과 장 단위의 텍스트 구성이나 시의 운율법과 같이 해당 장르의 관습과 장르 특유의 요구에 따라 형성된 규범이다. (장경현, 2010:39-40)

화텍스트· 작품텍스트· 문서텍스트· 영상텍스트’가 들어간다고 하여, 화행과 매체를 각각 세로축과와 가로축으로 놓는 분류 체계를 선보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7> 고영근(2002)의 텍스트 장르 분류

	발화텍스트	작품텍스트	문서텍스트	영상텍스트
제보텍스트	O	O	O	O
호소텍스트	O	O	O	O
책무텍스트	O	O	O	O
접촉텍스트	O	O	O	O
선언텍스트	O	O	O	O
감동텍스트	O	O	O	O

또 다른 연구로 서상규·한영균(1999)에서는 자료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텍스트의 외적 존재 양상으로는 ‘전달 매체, 연속성, 공공성, 수용자 상정, 목적’ 등이 있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장르를 일차적으로 구분하였다.

<표 8> 서상규·한영균(1999)의 일차적 장르 분류

	글말(문어)	글말화된 입말	입말(구어)
예술	소설, 수필, 전기, 시	희곡, 시나리오	연극, 영화
비예술	논설문, 설명문, 보고문, 신문보도, 일기, 자서전, 안내문, 광고문, 정보서, 매뉴얼, 지침, 공고, 공문, 편지, 표어	연설문, 강의록, 대담, 좌담 기록, 구술 기록	연설, 강의, 대담, 좌담, 일상 대화, 이야기(구술), 독백

그런데 서상규·한영균(1999)에서는 이러한 일차적 분류 이후에 각각의 범주는 다시 산문성, 목적 등의 기준을 따라 더욱 세분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글말의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한 하위 분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9> 서상규·한영균(1999)의 글말 텍스트 장르 하위 분류

			산문	운문
예술			소설, 수필, 전기	시
비예술	학술		논설문, 설명문, 보고문	
	비학술	교양	논설문, 설명문, 보고문, 일기, 자서전, 편지	
		실용	안내문, 광고문, 정보서, 매뉴얼, 지침, 공고, 공문	광고문, 표어

마지막으로 해외의 경우, Biber(1988)는 글말과 입말을 모두 포괄하는 통계적 분석에 의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글말의 장르는 아래와 같다.

<표 10> Biber(1988)의 글말 텍스트 장르 분류

신문 기사(press reportage), 신문 사설(press editorials), 신문 비평(press reviews), 종교(religion), 취미(hobbies), 민간 설화(popular lore), 전기(biographies), 공적 문서(official documents), 학술 산문(academic prose), 일반 소설(general fiction), 추리 소설(mystery fiction), 공상 과학 소설(science fiction), 모험 소설(adventure fiction), 애정 소설(romantic fictions), 유머(humor), 사적 편지(personal letters), 전문적 편지(professional letters)

Biber(1988)의 이러한 분류는 주로 언어가 전달되는 매체와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주제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 장르의 분류는 주로 전달되는 매체의 종류나 해당 글의 기능이나 목적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물은 학자마다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자마다의 견해가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텍스트 장르 간의 경계를 얼마나 세세하게 세울 것이냐, 혹은 텍스트 간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이냐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마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해당 연구가 텍스트 장르의 구별을 통해 도출하고자 했던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점 역시도 텍스트 장르 구별의 상이함을 가지고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매체별 텍스트 장르의 특징을 세세히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체에 의한 분류 기준을 더욱 꼼꼼하게 내세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해서 신생 매체가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시대적 특성에 보다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 장르별로 나타나는 문체의 상이함을 관찰할 목적을 가진 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문체를 선택하는 데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2.3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에 대해서는 장경현(2010)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장경현(2010)에서는 문체 선택의 요소로서 '단절성 및 연계성, 화자 및 청자 지향성, 매체 제약성, 텍스트 장르의 관습'을 들고 있다.[5]

---

5) 이들은 모두 문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 외적 요소로 거론된 것들이고, 문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텍스트 내적 요소 또한 고려되고 있다.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문체만 사용

먼저 '단절성 및 연계성'은 화자와 청자가 물리적 혹은 맥락적으로 단절되어 있느냐, 아니면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연계성을 지니느냐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는 고영근(1976)에서 언급된 '상관적 장면, 단독적 장면'의 분류와 유사한 포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텍스트라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가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연계성이 높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 기사나 공지사항의 경우 독자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최초의 메시지 생산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으므로 단절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화자 및 청자 지향성'은 발화가 화자 (혹은 필자) 자신에게 열려 있어 화자 중심적인 발화가 되느냐, 아니면 청자 (혹은 독자)에게 열려 있어 청자 중심적인 발화가 되느냐의 차이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가 전달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얼마나 고려하여 발화하느냐의 문제이다. 권순희(2005)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청자 지향 관점'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는 화자가 청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의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서상규·한영균(1999)에서는 텍스트의 문체 선택 요인 중 청자와 관련된 것으로 '수용자 상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상규·한영균(1999)에서의 '수용자 상정'이라는 개념은, 해당 텍스트나 담화가 담은 메시지가 수용자(청자 혹은 독자)를 전제로 하여 생산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개념이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수용자로 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문체가 선택되어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텍스트 안의 논리 전개 구조 등의 내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 장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현 단계에서는 텍스트 외적 요인만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메시지의 수용자에 관련된 자질에는 다층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동일하게 수용자가 상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텍스트에서는 수용자가 개별화(individualize)되어 있는 반면 다른 텍스트에서는 수용자가 특정화되지 않은 익명의 대중이라면, 이 두 텍스트의 문체는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가 상정된 텍스트의 경우 수용자의 특정성 여부에 따른 하위 분류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장경현(2011)에서 논의된 '청자지향성'은 메시지의 생산자가 수용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며 배려하고 있느냐 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수용자 상정'이나 '수용자 특정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자를 고려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된 수용자가 존재해야 하므로, 이 개념 역시 '수용자 특정성'과 마찬가지로 '수용자 상정'을 전제하고 있는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메시지 수용자에 대한 메시지 생산자의 태도는 주로 존대법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화계가 문체에 반영되는 한국어의 특징상 문체를 가르는 핵심적인 자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청자 지향성'이라고 할 때 사용된 용어 '청자'는 자칫 입말에 의한 담화 상황만을 전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위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자'를 메시지의 '수용자'로 바꾸어서 입말이든 글말이든 해당 메시지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한편, '매체 제약성'은 텍스트가 전달되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그 예로는 인터넷 언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과도한 축약형이 나타나는 것이나 신문 표제어가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과감한 생략성을 띠는 것 등이 있다.

문체의 결정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는 해당 텍스트 장르가 공적인 것인가 사적인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서상규·한영균(1999)에서는 텍스트의 내적 분류 자질 중의 하나로 '공공성'을 들면서, 이를 생산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공적인 것이냐 사적인 것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요소는 ‘텍스트 장르적 관습’이다. 이는 어떤 장르의 텍스트가 가지는 장르 내적으로 정형화된 관습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번역된 시에서 ‘-네’ 종결형이 사용되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르적 관습’이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굳어진 것일 수 있어 그 굳어진 정도가 매우 특별한 문학 특정 장르를 제외하고는 문체 선택 요소로서 고려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미 해당 텍스트의 단절성 정도나 수용자 지향성 정도 등의 다른 자질들에 의해 고려된 특성이 이중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장르적 관습은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 요인으로서 고려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 종합한 문체 선택 자질들은 5장에서 장르별 분석을 위한 틀로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표 11> 텍스트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

<table>
<tr><td rowspan="2">[±단절성]</td><td colspan="3">[+단절성]</td></tr>
<tr><td colspan="3">[-단절성]</td></tr>
<tr><td rowspan="5">[±수용자 상정]</td><td rowspan="4">[+수용자 상정]</td><td rowspan="2">[±수용자 특정성]</td><td>[+수용자 특정]</td></tr>
<tr><td>[-수용자 특정]</td></tr>
<tr><td rowspan="2">[±수용자 지향성]</td><td>[+수용자 지향]</td></tr>
<tr><td>[-수용자 지향]</td></tr>
<tr><td>[- 수용자 상정]</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매체제약성]</td><td colspan="3">[+매체제약성]</td></tr>
<tr><td colspan="3">[-매체제약성]</td></tr>
<tr><td rowspan="2">[±공공성]</td><td colspan="3">[+공공성]</td></tr>
<tr><td colspan="3">[-공공성]</td></tr>
</table>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앞 장에서는 중화체와 관련하여 문체법과 문장종결법, 그리고 중화체라고 부를만한 종류의 형태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중화체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텍스트 장르 및 그 분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특정 텍스트 장르가 특정 문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고려된 장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한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 장르의 구성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 자료는 언중의 일상적 문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열 개 장르의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일상적 글말 텍스트 장르는 그간에 연구 대상 자료로 사용된 바가 많지 않으나, 실제 언중의 언어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장르들이라는 점에서 실증적 방식의 연구 대상 말뭉치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텍스트 장르의 구성과 해당 말뭉치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텍스트 장르 구성과 해당 말뭉치 규모

텍스트 장르	말뭉치 규모 (어절수)
신문 표제	5,91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4,690
공지사항 게시글	4,687
계약서	6,175
일기	4,027
법률 및 규칙	5,395
공문	6,499
매뉴얼	6,248

업무 문서	4,880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6,042
합계	54,353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장르로는 문학 텍스트 (혹은 예술적 텍스트)가 있다. 문학 텍스트는 그 안에서도 산문이냐 운문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운문 안에서도 번역된 것이냐 아니냐 등에 따라서 문체가 나타나는 양상이 상이하며 이들 장르에 나타나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수사학적 문체의 다양성을 중화체를 위한 논의에서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 장르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문학 장르를 제외한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기 위하여 신문 표제,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고려되지 못하였지만 그 장르 자체의 문체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계약서나 공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포함한 기업 내 각종 업무 문서들을 분석 대상 텍스트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 장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일상적 문서 생활에서의 쓰임이 많고 친숙한 장르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텍스트 장르로 구성된 말뭉치는 신문 표제 말뭉치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구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신문 표제 말뭉치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의 텍스트들은 모두 본 연구를 위하여 직접 구축된 것들이다. 각 장르별 말뭉치의 규모는 장르의 특성에 따라 개별 텍스트의 규모가 매우 상이한 까닭에 그 편차를 최소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각 장르별로 5천 어절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최소 4천 어절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규모가 큰 경우에는 6천 어절 내외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축한 말뭉치의 전체 규모는 도합 54,353어절이었다. 자세한 각 장르별 말뭉치의 출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3> 말뭉치 자료의 출처

장르	자료 출처
신문 표제	21세기 세종 말뭉치 중 신문 말뭉치에서 표제만 추출해서 구성.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파워블로그 게시글에서 구성.
공지사항 게시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립국어원, 채용 공고 게시판에서 구성.
계약서	근로 계약서, 인터넷 소비자 약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구성.
일기	개인 일기, 싸이월드 다이어리에서 구성.
법률 및 규칙	연세대학교 정관, 대학원 내규, 대한민국 법조문에서 구성.
공문	연세대학교 국문과에서 수신한 공문으로 구성.
매뉴얼	한국어기초사전 지침, 연세초등국어사전 지침, 휴대전화 사용설명서, 프린터 사용설명서에서 구성.
업무 문서	A기업 업무보고서, B기업 신입사원 교육자료, C기업 프로젝트보고서에서 구성.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D기업 컨설팅 자료, E기업 프로젝트 보고 자료, F기업 컨설팅 자료에서 구성.

첫째, 신문 표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 말뭉치의 글말 말뭉치 중에서 신문 말뭉치에 포함된 표제 부분만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나머지 아홉 개 장르의 말뭉치는 모두 직접 구축한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의 경우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세 개의 파워블로그들에서 추출한 텍스트들로 구성하였으며, 이때 여행, 요리, 화장법, IT 등의 다양한 테마의 블로그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공지사항 게시글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공지사항 게시판과 국립국어원의 알림 게시판, 그리고 각종 채용 정보를 모아서 소개하는 채용 정보 공지 게시판 등에서 얻은 자료로 구성

하였다. 넷째, 계약서 말뭉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 약관, 그리고 근로계약서 텍스트들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일기 장르는 본 연구자의 지인 열 명의 자필 일기와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작성된 일기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일기의 경우 개인적 문체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는 장르이므로 최대한 많은 집필자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률 및 규칙 장르는 연세대학교 정관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규,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문 중 일부를 임의로 발췌하여 구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법조문'이라는 이름으로 고착되어 온 경향이 있는 이 장르의 영역을 내규, 규칙, 정관 등의 연관되는 텍스트를 모두 포함하도록 넓혀 본 것이다. 여섯째, 공문 장르의 경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수신한 공문들로 구성하였는데 발신처는 대외, 대내를 망라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매뉴얼 장르는 한국어 기초사전과 연세초등국어사전의 편찬을 위해 작성된 편찬 지침과 전자기기 구매 시 제공되는 소비자용 사용설명서에서 임의로 일부를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여덟째, 업무 문서는 A기업 업무보고서, B기업 신입사원 교육자료, C기업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각각 발췌하여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업의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각 기업 특유의 문서 작성 관행이 통제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D기업 컨설팅 자료, E기업 프로젝트 보고 자료, F기업 컨설팅 자료에서 구성하되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로 한정하였다.

이처럼 구성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기능을 중시한 귀납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언어학적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논의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형태를 중심으로 삼아 하나의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문법적 특성이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

한 형태들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여러 형태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후자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한국어의 중화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중화체 문장종결형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언어가 부려 쓰인 자료들로부터 귀납적 방법으로 문장종결형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일상적 글말 텍스트의 말뭉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각 중화체 종결형들을 추출하는 귀납적 연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말뭉치 기반 귀납적 연구 방식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중화체 문장종결형들을 추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형태들의 의미 기능이나 형태통사적 특성 및 분포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말뭉치 용례 검색을 위해서는 '깜짝새 ver. 1.5.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태깅(tagging) 및 정량적 분석 작업을 하였다.

4. 중화체 문장종결형의 형태별 분석

앞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텍스트 장르를 한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제 본 장에서는 구축된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중화체의 형태들을 분석해내고, 각각의 형태들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4.1절에서는 말뭉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각 중화체 종결 형태들을 추출한 후 이들의 빈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4.2절에서는 각 종결형들의 형태적 기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형태별로 진행될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종결형들의 분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4.3절에서는 각각의 종결형들의 의미 기능 및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마지막 절에서는 이러한 의미 기능에 기초하여 각 종결형을 해당 문장 유형에 대응하여 목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로 한다.

4.1 형태별 정량적 분석

중화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중화체 문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문장종결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텍스트 장르별로 구축한 모든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문장 종결부의 모든 언어 형태를 추출하였다.[6] 이렇게 추출한 문장종결형들은 중화체, 화계체, 그리고 기타 비종결형식의 크게 세 가지로

6) 이때 문장과 문장이 아닌 것의 구별은 적어도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서술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위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컨대 용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해당 용언이 관형형으로 명사를 수식하면서 명사와 함께 NP를 이루는 경우는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공문이나 업무 문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혹은 신문 표제와 같은 장르의 특성상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명사구를 명사형 문장종결 형식으로부터 구분하여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중화체 형태들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계체와 기타 비종결형식을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문체법에서 많이 다뤄져 왔던 '합쇼체, 해요체, 해체' 등과 같은 문체를 이루는 형태들은 화계체로 분리해내었고, 다음으로 '-아/어서, -지만, -을/를, -며/면서' 등과 같이 본래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뒤에 말줄임표에 의하여 생략된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기타로 분리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7)

<표 14> 말뭉치 추출 문장종결형의 분류

구분	종결형
중화체	-(으)ㄹ 것, -(으)라, -(으)ㅁ, -기, -(느)ㄴ가?, -나?, -(는/ㄴ)다, -도록, 서술명사, -어/아/여
화계체	-구나!, -까?, -(느)냐?, -네, -다니!, -(습/ㅂ)니까?, -(습/ㅂ)니다, -십시오, -오, -자, -지, -지?, -해, -해요, -해요?
기타	-게, -고, -기로, -길, -ㄴ데, -니, -니까, -로, -며/면서, -어/아서, -을/를, -지만

이렇게 각 범주에 속하는 종결형들의 빈도수와 전체 빈도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표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5> 전체 텍스트에서의 문체별 빈도수 및 비중

구분	빈도수	비중
중화체	3,146	74.3%
화계체	1,004	23.7%

7) 표에서는 해당 종결형이 의문문을 만드는 형태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물음표를, 감탄문을 만드는 형태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하여 느낌표를 각각 붙여 표시하였다.

기타	82	1.9%
총합계	4,232	100.0%

이처럼 본 연구를 위하여 구성한 말뭉치 자료에서는 중화체 종결형이 전체의 74.3%를 차지함으로써 화계체 종결형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글말의 문장종결부를 위한 연구에서는 화계체보다 오히려 중화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어의 문장종결형들은 대부분 화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의 무비판적 수용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화계체에 있어서도 '하게체'나 '하오체' 등을 이루는 '-게, -네, -오' 등의 형태는 다른 화계체의 형태들에 비하여 그 쓰임이 덜한 것처럼 중화체를 이루는 각 문장 종결 형태들도 저마다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화체를 이루는 문장 종결형들의 빈도수와 해당 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빈도에서부터 나타내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중화체 종결형들의 빈도수 및 비중

종결형	빈도수	비중
서술명사	1,328	42.2%
-(는/ㄴ)다	1,298	41.3%
-(으)ㅁ	341	10.8%
-어/아/여	65	2.1%
-기	46	1.5%
-(으)라	22	0.7%
-(느)ㄴ가?	21	0.7%
-나?	11	0.3%
-도록	8	0.3%
-(으)ㄹ 것	6	0.2%
중화체	3,146	100.0%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화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서술명사와 '-(는/ㄴ)다'이다. 이 둘은 전체 빈도수 대비 각각 42.2%와 41.3%의 비중을 보이면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명사형 어미인 '-(으)ㅁ'으로, '-(으)ㅁ'의 빈도수는 전체 빈도의 10.8%로 나타났다. 그 밖의 문장종결형들은 모두 2% 안팎의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서 고빈도의 세 가지 종결형에 비해 그 쓰임이 매우 특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2 형태별 세부 분석을 위한 문장종결형의 분류

중화체를 이루는 문장종결형들에는 서법어미로 분류되는 것과 서법어미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의 두 부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상위문의 문말에 나타나 해당 문장의 화계를 중화시킨다는 의미 기능상의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사실인데, 이들 형태들이 어떻게 중화문에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상이한 경우로 분류된다.

첫째, 화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법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그 자리를 다른 형태가 대체하거나 아예 비워 둠으로써 해당 문장이 중화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종류는 화계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어떤 화계의 등분이 표시되지 않아 중화문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종결형들로는 '서술명사, -(으)ㅁ, -여/어/아, -(으)ㄹ 것, -기, -도록' 등이 있다.

둘째로는 '중화된 서법어미 형태'가 나타남으로써 해당 문장의 화계가 중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서법어미가 해당 자리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서법어미 자리에 전성어미나 연결어미 등의 다른 형태가 오거나 그 자리를 비

워 둠으로써 화계 정보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해당 문장이 중화문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형태적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들로는 선행 연구에서 일명 '하라체'로 불려온 것들, 즉 '-(는/ㄴ)다, -(느)ㄴ가?, -나?, -(으)라'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든 후자의 경우든 간에 이들 문장종결형들이 문말에 옴으로써 해당 문장이 화계가 중화된 문장으로 해석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미 기능상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예를 보았을 때, 특정 화계 정보를 표현해 줄 서법 어미가 출현하지 않아 중화문으로 해석되는 문장과 화계가 중화된 서법 어미의 출현으로 인해 중화문이 된 문장 사이에는 통사적 제약에 있어서나 의미 해석에 있어서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가. 유럽과 유럽 기업 및 그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음.
　　나. 유럽과 유럽 기업 및 그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다.

위의 예문에서 (2가)는 전자에 속하는 문장이고 (2나)는 후자에 속하는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은 모두 문장 유형에 있어서 평서형 문장으로 해석되며 어떤 통사적 차이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형태통사적인 것보다는 뉘앙스의 차이나 주로 사용되는 장르의 성격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록 해당 문장종결형들의 기원이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을 중화체의 테두리 안에 함께 묶을 수 있다고 보고, 각 형태들의 차이를 장르별 변이나 뉘앙스의 차이로서 변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화체를 이루는 문장종결형들을 먼저 그 의미 기능이 유사해 보이는 것들로 묶은 뒤 그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살펴보는 분류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중화체 문장종결형들에는 평서문을 이루는 것, 또는 의문문이나 명령문을 이루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서는 이들을 그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재차 분류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들 중화체 문장종결형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3) 가. '-(는/ㄴ)다'
　　나. 서술명사, '-(으)ㅁ', '-어/아/여'
　　다. '-기', '-(으)ㄹ 것', '-도록'
　　라. '-(으)라', '-(느)ㄴ가?', '-나?'

먼저 (3가)의 '-(는/ㄴ)다'류에는 선어말어미 없이 어간에 직접 붙은 '-다'를 비롯하여 시상형태소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형태, 그리고 '-단다'와 같은 융합 형태가 포함된다. 그런데 '-(는/ㄴ)다'는 굉장히 넓은 장르와 장면들에서 그 쓰임이 발견되는 형태로, 그 중에는 중화체의 테두리 안에 속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반말체로 사용되는 것도 있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화체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도 화계만 중화되는 것과 시제까지 중화되는 것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3나)에서는 문장의 종결부에 위치하는 서술명사들과 명사형 어미로 분류되는 '-(으)ㅁ'을 포함하여, 연결형 어미인 '-어/아/여'를 함께 묶었다. 이 항목에 속하는 형태들은 명사 그 자체와 명사형 어미, 연결 어미 등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진 것들이어서 이들을 함께 묶어 기술하는 것에 무리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평서형 설명문을 만들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들 사이의 의미나 뉘앙스의 차이는 서로 간의 대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변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3다)에서는 '-(으)ㅁ'을 제외한 명사형 어미인 '-기'와 '-(으)ㄹ 것'을 묶고 여기에 '-(으)ㄹ 것'과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인 '-도록'을 포함시켰다. 물론 '-(으)ㄹ 것'을 명사화소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형형과 의존명사의 결합형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문법가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관점을 취하더라도 이 형식이 명사형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3라)에서는 주로 명령법과 의문법을 실현시키는 중화체 형태를 묶어 보였다. 이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일명 '하라체'라고 하여 신문 표제나 구호와 같은 특정 맥락에서 청자를 특정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형식으로서 거론되어 왔던 형태들인데, 이들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중화체의 맥락과 맞아 떨어진다. 이 범주에 묶은 형태들은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빈도수는 미미한 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중화체를 한국어 문체법에서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만일 중화체 문장이 평서형에서만 주로 나타나고 다른 문장 유형에서는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특정 형태가 없다면, 갖춘 체계를 이루는 문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4.3 형태별 세부 분석

이제까지 한국어의 중화체를 구성하는 형태들을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뒤에, 개별 형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제 본 절에서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하였던 중화체 문장의 종결형 각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각 형태의 의미 기능 및 용법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되, 각 형태별로 상호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4.3.1 '-(는/ㄴ)다'

종결어미 '-(는/ㄴ)다'는 여러 종류의 종결어미들 중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는/ㄴ)다'는 서법 체계 안에서는 주로 설명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는데, 설명법이란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주관적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화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고영근(1976)에서는 설명법 '-(는/ㄴ)다'는 단독적 장면과 상관적 장면에서 모두 사용되는 것이라고 기술하여 그 넓은 분포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민(2000)에서도 역시 '-(는/ㄴ)다'는 설명법 문장종결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여 '-(는/ㄴ)다'의 기능을 동일하게 파악하였으며 그 의미 특성은 [+확실성], [+객관성]에 있다고 하여 이를 설명법의 전형적인 의미와 결부시켰다.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는/ㄴ)다'는 청자를 고려한 상황에서도, 청자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전자에서의 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용법의 '-(는/ㄴ)다'는 화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중화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는/ㄴ)다'는 본고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4) 가. "글쎄, 잘 모르겠다. 책에서 한 번 찾아 봐."

중화체를 화계가 중화된 문체라고 할 때, 단독적 장면에서 '-(는/ㄴ)다'에 의해 표현된 문장들은 모두 중화체로 표현된 문장들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각 문장이 해당 메시지의 수용자에 대하여 높임이나 낮춤의 특정한 화계를 표

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는/ㄴ)다'를 제외한 '-(는/ㄴ)다'는 모두 해당 문장의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는/ㄴ)다'에 의해 표현된 언어 형식들은 일종의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사전 기술을 위한 서술어의 대표형으로 '-(는/ㄴ)다'에 의한 활용형을 잡는 것 또한 이러한 점과 연관된다.

그런데 '-(는/ㄴ)다'가 중화체로서 쓰이는 각각의 경우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의 예문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는/ㄴ)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찰과 분류가 필요하다. 상관적 장면이 아닌 단독적 장면에서 쓰인 '-(는/ㄴ)다'의 용법은 아래와 같이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화체 문장으로 볼 수 있다.

(5) 가. 유럽과 유럽 기업 및 그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다.
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 표제어가 한자어일 때에는 괄호 안에 한자어를 표기한다.
라. 이것은 내 거듭된 실패 위에 또 하나 실패를 쌓는 일이었다.
마. 우도의 명물 커다란 해녀상이 있는 하고수동 해수욕장에 다녀오다.

위의 예문에서 먼저 (5가, 나, 다, 라)는 모두 '-다'가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문장들의 예이다. '-다'는 (5가, 라)에서 '-었-'과 결합하였고 (5나, 다)에서는 '-는/ㄴ-'과 결합하여 각기 다른 시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5마)의 경우 '-다'가 선어말어미 없이 어간에 바로 결합하여 쓰였다. 이렇게 '-다'가 시상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나타난 문장인 (5마)의 경우 임홍빈(1983)에서 이른바 '절대문'이라고 이름붙인 종류의 것으로, 화계뿐만 아니라 시제까지도 중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마)와 같이 시제마저 중화되어 나타나는 '-(는/ㄴ)다'형은 그렇지 않은 문장들에 비해서 해당 문장이 하나의 어휘적 요소(lexical item)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제 요소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발화시 또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여 진술할 때 표시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태에 대한 '진술'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5마)와 같은 문장에서는 이러한 시제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문장이 가지는 진술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어휘가 갖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먹다'는 하나의 어휘로 인식하면서 '먹었다' 혹은 '먹는다'는 문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5마)와 같은 중화체 문장이 신문의 표제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신문 표제는 같은 지시물에 대하여 '신문 표제어'로도 불리는 일이 흔히 있을 정도로 어휘 항목으로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 여부를 통하여서는 (5마)가 나머지 예문들과 구별되었지만, 그 기준을 해당 문장이 나타내는 서법으로 바꿀 경우에는 (5다)가 나머지 예문들과 구분된다. 앞에서 '-(는/ㄴ)다'가 갖는 전형적인 서법 범주는 설명법이라는 것을 언급한 바 있는데, (5다)만은 이 설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5다)는 어떤 사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설명법 문장이 아니라, 명령법의 일종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지침을 알려 주는 지시명령문(indicative imperative)인 것이다.

지시명령문은 해당 메시지의 수용자로 하여금 어떤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령문과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령의 의미를 전달하는 서법 어미들이 사용될 경우에 그 문장의 뉘앙스가 너무 강압적이거나 직접적이어서 내용과 표현

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시명령문에 있어서는 여타의 명령문과 구별되는 형태가 있다면 유용할 것인데, 이때 사용되는 형태가 바로 '-(는/ㄴ)다'인 것이다. 따라서 (5다)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는/ㄴ)다'는, 문장 유형의 차원에서 보건대 평서문이 아닌 지시명령문을 만드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5라)의 문장은 '-(는/ㄴ)다'가 가지는 자기고백적 의미 기능을 잘 보여준다. '-(는/ㄴ)다'는 어떤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전달적인 진술보다 자기고백적인 진술에 더 잘 어울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는/ㄴ)다'는 일기와 같은 자기고백적 성격을 갖는 장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5장의 장르별 논의에서 덧붙이기로 한다.

4.3.2 서술명사, '-(으)ㅁ', '-어/아/여'

'-(는/ㄴ)다'에 의한 중화체 문장과 더불어 중화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종결형은 바로 명사형 어미 또는 서술 명사들이다. 명사화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는 Biber(1988:227)에서 역시 언급된 바 있는데, 영어의 명사화 접사 '-tion, -ment, -ness, -ity' 등이 추상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이유로 입말에서보다 글말에서 많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한편, 민경모(2000)에서는 이러한 설명에 착안하여 한국어에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텍스트 장르별로 빈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예상 밖으로 한국어에 있어서는 사용역별로 명사형 어미 출현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사형 어미가 문장의 어느 부분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내려진 결론이었다. 시상이나 화계를 나타내

어 줄 형태소들과 결합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명사형 종결형들의 특징상 이들은 중화체가 주로 선택되는 장르에서 고빈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한편, 김흥수(1995)에서는 명사화의 문체적 기능이 눈에 띄는 것은 서술적 쓰임의 환경에서라고 하면서 동사적 표현의 구체성이 명사화 구성에서 추상화되는데 이러한 점이 명사화의 문체적 효과를 낳는 의미론적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동사적 표현의 명제는 직접 표현, 전달되는 표현적 정보로서 명제나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데 비해, 내포된 명사화 구성에서는 추상적 명제로 남아 그러한 표현성, 청자 관련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아래 예문에서 (6가)와 같은 문장이 갖는 문체적 효과의 기원을 (6나)와 같은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6) 가. 돌 자체의 성격과 품격이 중요함.
　　나. 돌 자체의 성격과 품격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다. 돌 자체의 성격과 품격이 중요하구나 싶었다. (김흥수, 1995:139)

위의 예문에서 (6나)와 (6다)를 비교해 볼 때 (6나)의 밑줄 친 부분이 (6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상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6가)와 같은 문장이 갖는 문체적 추상성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종결 자리에서 사용되는 명사형 어미가 갖는 의미 기능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7) 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신청 대상 학기가 변경될 수 있음.
　　나.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신청 대상 학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다.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신청 대상 학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합니다.

위의 예문에서는 (6)의 예에서와는 달리, (7나)의 밑줄 친 부분이 (7다)의 밑줄 친 부분에 비해서 더 추상적인 진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7다)에서는 공지하는 내용이 거짓된 것일 수 있는 반면에 (7나)에서는 공지하는 내용이 사실임이 보다 분명히 전제된다.[8] 물론 이러한 차이는 (7다)의 보문자 '-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7나)의 밑줄 친 부분이 (7다)의 밑줄 친 부분보다 추상적인 느낌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은 여전하다. 양자는 모두 단정적인 진술의 느낌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장종결부에서 나타나는 명사형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는데, 이는 바로 한국어에 무수히 많은 서술명사들의 존재이다. 한국어에서는 명사를 동사로 전성하여 파생시키는 기제가 매우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기제는 바로 서술명사에 동사 파생 접사 '-하다'를 붙이는 것이다. 서술명사를 어기로 하여 서술명사들이 동사를 파생시키는 현상은, 다시 말하면 <서술명사+'-하다'>와 같은 구성을 가진 동사들에 서술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바로 어기인 서술명사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서술명사와 관련하여 남기심(2001)에서는 <서술명사+'-하다'> 구성에 참여하는 '-하다'는 통사적인 기능은 있으되 의미는 없는 빈껍데기 같은 존재이며, 실제로 논항을 이끄는 것은 서술성 명사의 의미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 서술명사가 서술적 기능을 한다는 점은 '*바다하다, *책하다, *볼펜하다, *지갑하다, *가방하다' 등의 예와 같이 서술성을 지니지 않은 구체 명

8) 남기심(1973)에서는 (7나)와 같은 문장을 불구보문, (7다)와 같은 문장을 완형보문이라고 하여 구분한 후, 완형보문과 불구보문의 의미적 차이는 바로 이러한 진술의 사실성 전제 여부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남기심(1973) 참조.

사와 '-하다'가 결합된 경우에는 이 결합체가 서술성을 지닌 동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9)]

이처럼 그 자체에 서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명사들 역시 문장 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태에 대하여 서술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실현된 것이 바로 문장종결부에 서술명사가 사용된 중화체 문장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동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 '서술'의 의미를 왜 서술명사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명사와 동사의 형태통사적 특징의 차이에 기반한다. 한국어의 동사는 반드시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만 자립할 수 있는데, 이때 결합되는 어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장의 화계가 결정되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명사는 동사의 어간에 비해 자립성이 뛰어나서 어떤 후속 형태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명사가 자립적으로 쓰일 경우 화계가 유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10)] 바로 이러한 점이 명사형 문장종결형이 중화체를 위하여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서술명사로 끝나는 중화체 문장은 서술명사의 수만큼이나 매우 많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론상 모든 서술명사가 중화체 문장의 서술부에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점과 부합하여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도 '-(으)ㅁ'이나 '-기'와 같은 명사형 어미에 의한 종결형보다 서술명사 종결형이 더욱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몇몇 예만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9) 물론 '밥하다'와 같이 구체명사와 '-하다'의 결합형이 적법한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하다'는 '만들다, 짓다' 등의 실질적,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형식적, 문법적 의미만을 갖는 '-하다'와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밥하다'류의 '-하다'에 대해서는 김영희(1984) 참조.

10)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바로 이러한 명사와 동사 어근의 자립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명사에 결합하는 형식인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어근에 결합하는 형식인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8) 가.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는 학과에서 승인 후 대학원에서 승인.
나. 소요 경비를 연구재단과 선정자 간에 협약 체결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다. 시장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강의로 구성.
라. 학위 논문 체제는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마. Biomass 자원 확보 경쟁으로 인한 Cost 증가 우려.
바. Cost 절감액, Revenue 증대액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사고 발생 가능성 원천 차단.

한편, 문장종결부에서의 명사형 어미의 사용은 바로 이러한 서술명사의 쓰임으로부터 동기화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9) 가. 트렌드에 따라 각 신재생 에너지 시장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음.
나. 트렌드에 따라 각 신재생 에너지 시장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사실 위와 같은 예문에서 (9가)와 (9나)는 상호간에 어떠한 의미 차이도 드러내지 않을 뿐더러 음절의 수도 정확히 일치하여 어느 한쪽이 언어의 경제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더욱이 (9나)의 종결 형식 또한 화계가 중화되어 있는 '-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9가)와 (9나) 사이의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9가)와 같은 명사형 종결형의 사용을 동기화하는 것은 해당 글 안의 다른 문장들에서 서술명사 종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서술명사로 문장을 끝맺은 다른 문장들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사형 종결형이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명사형 종결형의 경우 서술명사로 대체될 수 없는 문장에 한

하여서 선택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 실제로 말뭉치 자료에서 서술명사 종결형과 명사형 종결형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배타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들은 모두 서술명사 종결이 불가능한 자리에 명사형 종결이 나타난 것들이다.

(10) 가. 경제성 높은 입지 확보를 위한 경쟁력 낮음.
나. OO 인수와 관련하여 당사의 공시 의무 사항은 없음.
다. 체류 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를 구비하신 분에 한함.
라. 지원자의 능력 적격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학적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바. 월세는 매월 지정일에 임대인계좌에 입금키로 함.

(10가, 나, 다)는 각각 문장의 종결부 서술어로서 '낮다, 없다, 한하다'와 같이 연관된 서술명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가 위치하였다. 따라서 이때 이들 동사들이 명사화된 것으로 문장이 종결되었다.

(10라)는 '-(으)ㄹ 수 있다/없다'의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연결형 (혹은 문법적 연어 구성)이 문장의 서술어로 채택된 경우이다. 이때에도 역시 이에 관련된 서술명사를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0마)는 피동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술명사가 아닌 명사형 어미가 종결형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10마)의 서술어인 '상실되다'는 그 어근으로 된 서술명사 '상실'을 갖지만, 독자가 이 서술명사 '상실'을 접했을 경우 보다 무표적으로 유추되는 단어는 '상실되다'가 아닌 '상실하다'일 것이다. 따라서 (10마)의 명사형 종결형의 경우 '-되다'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0바)의 경우 '-기로 하다'의 의미, 즉 그러한 내용을 양자간에 합의, 혹은 약속하였다는 의미를 위하여서 명사형 어미가 선택되었다. 만일

(10바)를 '월세는 매월 지정일에 임대인 계좌에 입금'과 같이 서술명사로 바꾼다면 합의 혹은 약속의 의미는 사라지고 권고나 명령의 의미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이 관련된 의사소통 당사자들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로 하다'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는데, '-기로 하다'에는 앞서 설명하였던 '-(으)ㄹ 수 있다/없다'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하는 서술명사를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명사형 어미가 채택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말뭉치 자료에서는 명사형 어미 종결 형식 중에서 <서술명사+'-함'>의 구성은 그 빈도가 매우 낮고 대부분의 문장은 그에 대응되는 서술명사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이러한 점은 명사형 종결형의 사용보다 서술명사 종결형의 사용이 보다 기본적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그런데 특히 신문 표제와 같은 특정 장르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결형식의 문장이 꽤 등장한다.

(11) 가. 조순 서울 시장 예방 받아.
　　나. 주교 회의 사회복지위 총회 6 ~ 7일 원주에서 열려.
　　다. 해외 과학 기술 동향 정보 활용 손쉬워져.
　　라. 언론사 대학 평가 왜곡에 교수들 법적 소송 나서.
　　마. 국수주의에 젖지 않는 보편학으로 정립해야.
　　바. 관람료 수입 각종 불사에 폭넓게 써야.

위의 예문들은 모두 연결 어미인 '-어/아/여'로 종결된 문장들이다.[11] 이 문

11) 엄밀히 말하면 (11마, 11바)는 '-어야/아야'로 종결된 문장이다. 학교문법에서 '-어야/아야'는 '-어/아/여'와 구분되고 있지만 양자가 모두 연결어미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여기에서는 '-어/아/여'를 대표로 하여 기술하되 양자를 아울러 논의하도록 하겠다.

장들은 모두 서술명사로 종결될 수 없으므로 서술명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문장들이라는 점에서 위의 (10)의 예문과 동일하다. 그런데 (10)과는 달리 (11)에서는 '-(으)ㅁ'이 아닌 '-어/아/여'가 종결형으로 선택되었다. 이는 아마도 '-어/아/여' 종결형이 가진 경제적 이점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장들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보면 '-어/아/여' 종결형이 가진 경제성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

(11') 가. 조순 서울 시장 예방 받다.
나. 주교 회의 사회복지위 총회 6 ~ 7일 원주에서 열리다.
다. 해외 과학 기술 동향 정보 활용 손쉬워지다.
라. 언론사 대학 평가 왜곡에 교수들 법적 소송 나서다.
마. 국수주의에 젖지 않는 보편학으로 정립해야 하다.
바. 관람료 수입 각종 불사에 폭넓게 써야 하다.

'-어/아/여' 종결형을 가진 (11)의 예문들과 이를 '-다'형으로 바꾸어 본 (11')의 예문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없으나 음절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11나)의 서술부인 '열려'의 음절수는 (11'나)의 서술부인 '열리다'의 음절수와 비교해 볼 때 한 음절이 적어서 경제적이다. 게다가 (11마)나 (11바)와 같이 당위를 설명하는 문장에 있어서는 '-해야 한다'를 '-해야'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 표현의 경제성이 더욱 커진다.

또한 (11마)와 (11바)를 통해서는 '-어/아/여' 종결형이 '-다' 종결형 뿐 아니라 '-(으)ㅁ' 종결형보다도 경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11마)와 (11바) 각각을 '-(으)ㅁ' 종결형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11'') 마. 국수주의에 젖지 않는 보편학으로 정립해야 함.
바. 관람료 수입 각종 불사에 폭넓게 써야 함.

(11''마, 바)의 경우 (11'마, 바)보다는 경제적이지만 (11마, 바)보다는 잉여적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은 신문 표제가 가지는 극도의 축약적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어/아/여' 연결형이 유독 신문 표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어/아/여' 연결형이 유독 신문 표제에서만 나타나는 이유에는 신문 표제가 가지는, 해당 표제에 관련된 기사 본문과의 내용적 연결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신문 표제는 다른 장르와는 달리 각각의 문장이 그에 연결되는 신문 기사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기사의 내용과 신문 표제의 내용을 비단절적으로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문 표제에서 사용되는 '-어/아/여' 문장종결형이 바로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장르별 분석을 위한 논의로 미뤄 두기로 한다.

4.3.3 '-기', '-(으)ㄹ 것', '-도록'

같은 명사형 어미라 하더라도 '-기'는 '-(으)ㅁ'과는 다른 의미를 표현한다. 명사화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두 형식인 '-(으)ㅁ'과 '-기'의 의미 차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던 '-(으)ㅁ'과 '-기'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12)]

12) '-(으)ㅁ'과 '-기'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권재일(1981), 심재기(1980), 우형식(1987), 홍종선(1983), 황병순(2004) 등 참조.

<표 17> '-(으)ㅁ'과 '-기'의 차이

'-(으)ㅁ'	'-기'
결정성	비결정성
완료	미완료
한정성	비한정성
과거	미래
개별적	일반적
구체적	추상적
실제적	가상적

이러한 차이점은 이 명사형 어미들이 중화체 문장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어떤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2) 가. 회의 관련 공지사항을 관련 부처에 회람함.
　　 나. 회의 관련 공지사항을 관련 부처에 회람하기.

(12가)의 경우 공지사항을 이미 회람하였다는 완료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반면 (12나)의 경우 미완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 앞으로 공지사항을 회람해야 함을 나타낸다. (12가)와 (12나)에서 다른 점은 오로지 종결형으로 '-(으)ㅁ'과 '-기' 중에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하는 것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이 두 종결형식의 의미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다.

'-(으)ㅁ'과 '-기'의 이러한 의미 차이는 '-기'가 사용된 문장이 주로 명령의 화행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다.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기'의 이러한 쓰임을 보여 주는 문장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3) 가. 3월에 있는 시험에서 A2 등급을 취득하기.

나. 스페인, 그리스, 스위스 중에 한 곳을 여름휴가 중에 다녀오기.

다. 남이 아닌 나를 바꾸기.

라. 세계 석학과의 공동 연구로 '눈높이' 올리기.

위의 문장들은 모두 해당 문장이 담고 있는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할 것을 주문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이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주어가 없이 쓰이고 있다는 통사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 또한 이 문장들을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에서는 해당 명령을 받는 주체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 이 때 명령을 받는 대상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맥적 상황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므로 이 주어는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여타의 명령문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주어는 대부분 2인칭이거나 3인칭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명령 실현의 주체인 것에 비해서 (13)의 문장들에서는 명령을 받는 대상, 즉 해당 문장의 비실현 주어가 1인칭 화자 자신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를 문장종결형으로 선택한 문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명령이라는 점에서 '다짐'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의 이러한 특성과 함께 고찰해 볼 만한 것으로는 '-(으)ㄹ 것'과 '-도록'이 있다. 먼저 '-(으)ㄹ 것'이 중화체 문장종결형으로 사용된 예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4) 가. 일본 도항시까지 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할 것.

나. 표준국어대사전을 그대로 drag하지 말고 콜론을 써 넣을 것.

다. 뒷면에 국적과 성명을 기입 후 신청서 소정 위치에 첨부할 것.

라. 채용 후에 판명된 경우는 자퇴할 것.

마. 학위 논문 개요 등은 간결히 정리한 서류를 작성할 것.

바. 많은 사람에게 같은 메일을 보내지 말 것.

사. 지원 분야는 OO대학에서 교육, 연구 지도가 가능한 분야일 것.

아. 이메일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할 것.

위의 예문 중에서 (14가~바)는 직접적인 명령을 나타내고 (14사, 14아)는 어떤 일의 조건을 나타낸다. (14가~바)의 명령문들 역시 (13)에서 살펴보았던 '-기'에 의한 다짐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을 수행할 당사자인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생략된 주어는 전형적인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명령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당사자, 즉 2인칭 또는 3인칭 주어이다. 이를 통해서 '-(으)ㄹ 것'은 주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이며 단호한, 전형적인 명령문의 성격을 띠는 문장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나 '-(으)ㄹ 것'의 명령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지시명령문을 실현하는 형식 중 하나로 언급하였던 '-(는/ㄴ)다'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5) 가. 위의 7개 국어를 <원어> 난에 기술할 시 해당 원어로 표기한다.

나. ?위의 7개 국어를 <원어> 난에 기술할 시 해당 원어로 표기하기.

다. ?위의 7개 국어를 <원어> 난에 기술할 시 해당 원어로 표기할 것.[13)]

13) 이 문장의 경우 적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매뉴얼이라는 장르를 고려했을 때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매뉴얼 텍스트 안에서 이러한 문장이 등장한다면 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해 놓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앞서 '-(는/ㄴ)다'가 어떤 절차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시명령문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살펴본 바 있는데,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검색된 용례인 (15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용법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15나, 다)와 같이 교체해 보았다. 지시명령문의 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 (15)의 예문은 (가)에 비해서 (나, 다)는 그 적절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지시명령문이 주로 사용되는 장르인 매뉴얼의 말뭉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15나, 다)와 같은 예문은 그 빈도가 극히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기'나 '-(으)ㄹ 것'이 각각 가지는 의미 기능이 지시명령문을 위한 의미 기능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15나)의 '-기' 종결형 문장이 가지는 1인칭 지향적 의미가 지시명령문의 의미 기능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15다)의 경우 '-(으)ㄹ 것'이 가지는 당위나 의무를 표현하는 의미가 절차나 방식을 안내하는 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시명령문의 의미 기능과 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편, (14사, 아)의 경우 명령을 나타내기 보다는 어떤 일을 위한 조건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으로 (14가~바)의 문장들과 구분된다. (14사)는 지원 분야에 대한 조건을, (14아)는 좋은 이메일이 갖춰야 하는 조건을 각각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으)ㄹ 것'이 조건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할 때는 보통 해당 문장이 주제어(topic)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앞뒤 문맥에 의해서 무엇에 관한 조건인지가 분명할 때에는, 조건을 표현하는 문장의 경우에도 주제어가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주제어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무표적(unmarked)인 용법인 명령문의 경우와 달리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주제어가 실현되는 것이 무표적(unmarked)인 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도록'의 경우, 그것이 명령문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대부분의 용법에서 '-(으)ㄹ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도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의 범위는 '-(으)ㄹ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의 범위보다 좁은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13)의 예문의 종결형을 '-도록'으로 바꾸어 본 아래 예문을 통

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4') 가. 일본 도항시까지 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나. 표준국어대사전을 그대로 drag하지 말고 콜론을 써 넣도록.

다. 뒷면에 국적과 성명을 기입 후 신청서 소정 위치에 첨부하도록.

라. 채용 후에 판명된 경우는 자퇴하도록.

마. 학위 논문 개요 등은 간결히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바. 많은 사람에게 같은 메일을 보내지 말도록.

사. ?지원 분야는 OO대학에서 교육, 연구 지도가 가능한 분야이도록.

아. ?이메일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하도록.

(14'가~바)의 예문은 모두 직접 명령을 의미하는 문장들로서 (14가~바)의 문장들과 의미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4'사, 아)의 경우 해당 문장의 적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었던 (14사, 아)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도록'은 직접 명령의 기능 외에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으로서는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으)ㄹ 것'보다 좁은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아래 예문들은 모두 어떠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 사설의 제목들로서, '-도록'이 직접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것들이었다.

(16) 가. 늘어나는 消費에 過不足 없도록.

나. 私債 非理 더 밝혀 不信素地 씻도록.

다. 首都圈 인구 정책 實效性 있도록.

한편, 고성환(2003:146)에서는 '-(으)ㄹ 것'과 '-도록'을 모두 명령형 종결

형으로 설정하면서도 ‘-(으)ㄹ 것’은 언제나 단독적 장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데 반하여 ‘-도록’은 상관적 장면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단독적 장면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14)와 같은 실제 말뭉치 용례들을 생각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고성환(2003)에서 ‘-도록’이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된다고 하면서 보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정말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17) 가. 네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나. 너희들이 짐을 옮겨오도록. (고성환, 2003:146)

이러한 문장은 고성환(2003)의 판단과는 달리 군대 내에서 상관과 부하의 대화와 같은 특정한 맥락를 상정하지 않는 이상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화의 경우에도 (15)와 같은 문장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여겨지기가 어렵고 다음과 같이 되묻는 발화를 덧붙여야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 가. 네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도록. 알겠나?
　　 나. 너희들이 짐을 옮겨 오도록. 알겠나?

게다가 군대 내에서의 명령과 같은 특수한 장면을 전제한다면, ‘-도록’이 사용된 (17')와 같은 문장을 ‘-(으)ㄹ 것’으로 교체한 아래와 같은 문장도 충분히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7'') 가. 네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 알겠나?

나. 너희들이 짐을 옮겨올 것. 알겠나?

유독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관적 장면에서도 이러한 중화체 문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으)ㄹ 것'과 '-도록'이 갖는 직접적이며 단호한 뉘앙스와 연관시킬 수 있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문화가 지배하는 군대 문화에서는 특히 상관의 명령이 직접적이며 단호한 명령이며 사적인 부탁의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공식적인 명령이라는 뉘앙스를 띠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극단적인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계체에 존재하는 명령형 어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해체'나 '해라체'의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격식성과 공식성이 떨어지며 '하게체' 이상의 화계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과 부하 간의 극단적인 지위 고하의 구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대와 같은 특수한 맥락에서의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으)ㄹ 것'과 '-도록' 명령문은 극단적인 공대법의 실현을 위하여 관습적 차용이 용인되어 온 매우 예외적인 쓰임이라고 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외적 쓰임을 제외하고 나면 '-도록'은 '-(으)ㄹ 것'과 마찬가지로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중화 명령문을 위한 종결형이라고 볼 수 있다.

4.3.4 '-(으)라', '-(느)ㄴ가?', '-나?'

임동훈(2011)에서는 '개별화되지 않은 청자에게 쓰이는 문장'에 사용되는 종결형으로 평서문의 '-(는/ㄴ)다'와 의문문의 '-(느)ㄴ가', 명령문의 '-(으)라'를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본고에서 중화체의 표현 형식으로 규정한 것들로, '개별화되지 않은 청자에게 쓰이는' 종결형이라는 것은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다. 본 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각각 명령문의 일종과 의문문을 실현하는 형태인 '-(으)라'와 '-(느)ㄴ가', '-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으)라'는 바로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명사형 종결형 중에서 '-(으)ㄹ 것', '-기'와 함께 명령문의 체계를 이룬다. 그러나 그 의미 기능은 이들 두 명사형 종결 형태와는 조금 다르다. 아래 문장들은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으)라' 종결형이 사용된 문장들이다.

(18) 가. 동업자와 가격을 이야기하지 말라.

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을 경우 매사에 더욱 조심하라.

다. 제품을 끼워 팔지 말라.

라. 최규하 씨는 스스로 나서라.

이러한 문장 유형에 대해서 남기심·고영근(1985/1993)에서는 '간접명령문'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때 간접명령문을 실현하는 문체를 '하라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이 일명 '하라체'는 신문 표제나 시위 구호, 플래카드 등의 단독적 장면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으로 미루어 보건대 일명 '하라체'를 중화체의 범주로 포섭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임을 알 수 있다. 메시지의 수용자를 특정하지 않는 까닭에 화계를 중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중화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얼핏 (18라)의 문장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18라)에서는 해당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수용자로 '최규하'라는 특정 인물을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특정 개인이 해당 메시지의 수용자로 특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는 화자, 즉 메시지의 전달자와 청자, 즉 메시지의 수용자 간의 사회적 지위 또는 나이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한 화계를

실현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18라)의 문장에서 사용된 '-(으)라' 역시도 중화체 형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경우 메시지의 수용자로 상정된 '최규하 씨'는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지위의 높낮이가 설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화계도 설정할 수 없는 '객관화된' 대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고성환(2003:114)에서는 '-(으)라' 문장은 그 명령 수행 대상이 구체적인 명령 수행 대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명령 수행 대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대우 중립적인 문장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중화체 명령문이 사용될 수 있기 위한 본질적인 전제 조건은 해당 문장의 명령 수행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이냐 추상적인 대상이냐 하는 것보다는 해당 명령 수행 대상, 즉 발화된 문장의 청자와 화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특정적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추상적인 대상에 대하여 부려 쓰인 문장의 경우 중화체 명령문에 사용되는 까닭은 그 대상이 추상적이며 객관화된 대상이라는 이유로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중화체가 사용되는 환경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서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의 특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 단지 청자, 혹은 메시지 수용자의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는 설명에 비해 보다 본질적인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화계의 등급은 청자의 연령이나 지위 고하 등의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의 상대적인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18라)와 같은 문장의 주어의 자리에는 특정되지 않은 복수의 무리들이나 기관 등이 오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데, 이 역시도 화자와 청자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특정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설명에 부합한다. 아래 예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 가. 외국인은 물러가라. (남기심·고영근, 1985/1993:355)

한편, 중화체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형태로는 '-(느)ㄴ가'와 '-나'가 주로 사용된다. 본래 '-(느)ㄴ가'는 하게체에서 사용되는 의문형 어미로 설명이 되어 왔는데, 이 경우에는 청자에 대한 화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화체의 종결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아래 예문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20) 자네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윤석민, 2000:152)

그런데 이 '-(느)ㄴ가'가 하게체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입말의 대화 상황에서이며, 문서상에서 사용될 때에는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하게끔 하는 종결형으로 사용된다. 앞서 '-(는/ㄴ)다'의 경우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사용역에서 때로는 화계체로, 때로는 중화체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느)ㄴ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느)ㄴ가'와 '-나'가 중화체로 사용된 것으로 말뭉치에서 검색된 예문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21) 가. 아소트가 깨진 후에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교육부 감사, 무엇이 문제인가?
다. 소급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
라. 반성의 고통은 누구의 몫인가?
마. 그렇기에 인생은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바. 고등 교육 부문 대외 개방 어떻게 되나?
사. 풍수지리,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위의 예문에서 (21가~마)는 '-(느)ㄴ가'가, (21바, 사)는 '-나'가 종결형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둘을 각각 바꾸어서 표현하여도 해당 예문이 담고 있는 의미의 뉘앙스에는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서술부가 <명사+‘-이다’>의 구성일 경우에는 거의 항상 ‘-나’보다는 ‘-(느)ㄴ가’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문은 성립하지 못하거나 수용도가 떨어진다.

(21') 나. *교육부 감사, 무엇이 문제나?
다. *소급 입법, 어떻게 볼 것이나?
라. ?반성의 고통은 누구의 몫이나?

그러나 그밖의 경우에는 ‘-(느)ㄴ가’와 ‘-나’는 자유롭게 교체된다. 마찬가지로 (21)을 가공하여 ‘-(느)ㄴ가’는 ‘-나’로, ‘-나’는 ‘-(느)ㄴ가’로 교체하여 만든 아래의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14]

(21'') 가. 아소트가 깨진 후에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 그렇기에 인생은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나?
바. 고등 교육 부문 대외 개방 어떻게 되는가?
사. 풍수지리,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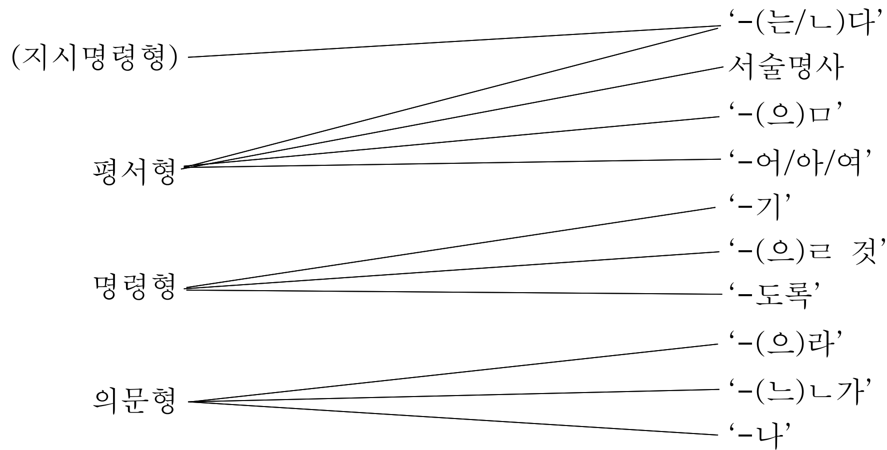
그런데 중화체 의문문을 만드는 ‘-(느)ㄴ가’와 ‘-나’에 의해 만들어진 의문문은, 의문문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장면에서의 쓰임과 조금 다른 기능을 한다. (21)의 예문들은 모두 해당 물음에 대한 청자의 즉각적인 대답을 전제하는 의

14) 이렇듯 ‘-(느)ㄴ가’와 ‘-나’의 의미 기능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두고 ‘-나’는 ‘-(느)ㄴ가’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형태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고영근(1974), 이현희(1982) 참조.

문문들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자문(自問)'의 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들은 화두를 던지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사용하여 화두를 던진 후에, 그에 대한 해답을 본인 스스로가 뒤에서 제공하는 식으로 앞으로의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문들은 '자문'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화계를 중화시켜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화체의 형태인 '-(느)ㄴ가'와 '-나'가 문장종결형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4.4 형태별 분석의 함의

이제까지 문장의 종결부에 나타나서 해당 문장을 중화문으로 만들어 주는 문장종결형들의 개별 의미 기능과 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각각의 형태를 해당 형태가 기여하는 문장의 유형에 대응시켜 보면 중화체가 각 문장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그림 2> 중화체 문장종결형과 문장 유형

위의 그림에서 중화체 문장 유형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으로 크게 나누고 명령형의 일종으로 지시명령형을 두었다. 지시명령형을 굳이 표시한 것은, 지시명령문을 만드는 문장종결형이 그렇지 않은 명령문의 문장종결형과 다르고 해당 형태가 사용되는 빈도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적 문장의 유형에 포함되는 감탄형과 청유형이 이 체계에서 누락된 것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 자료에서 이들 문장 유형에 해당되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탄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종결형은 어떤 종류의 문체에서도 따로 존재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유형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중화체 체계 내에서 청유문을 위한 문장종결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구호 등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인 '-자'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실제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 까닭에 자료에 등장하지 않은 형태인 '-자'를 체계에 포함시키지는 못하였다.

한편, 가장 다양한 형태와 대응된 문장 유형은 평서형과 명령형으로 각각 4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형태가 대응되었다. 의문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두 개의 형태로만 나타났다. 이는 문서 텍스트들에서 나타나는 문장 유형 자체의 빈도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평서형과 명령형에 대응되는 각각의 형태들은 그 나름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세분된 영역을 각기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서형에서도 자기고백적 문장은 '-(는/ㄴ)다'만이 담당하고 보다 요약적이고 간결한 표현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서술명사나 '-(으)ㅁ'이 사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으며 명령형의 경우에도 명령 수행의 주체가 화자 자신인 경우는 '-기'가 주로 담당하여 다짐문을 만들며 보다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으)ㄹ 것', '-도록' 등이 사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술 명사나 명사형, 혹은 연결형 어미와 같이 서법 어미가 표현되지 않는 방식에 의하여 중화문을 만드는 경우와, 일명 '하라체' 종결형들과 같이 중화된 서법 어미의 사용을 통하여 중화문을 만드는 경우는 그 형태적 기원에 상관없이 모두 중화체의 체계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때 각각의 형태들의 차이는 해당 종결형에 의해 표현된 중화문의 뉘앙스가 보다 요약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보다 단호한 뉘앙스인지 그렇지 않은지와 같은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해당 종결형이 일정한 성격을 지니는 장르에서 보다 고빈도로 사용되도록 할 것이므로 텍스트 장르별로 주로 어떠한 중화체 종결형이 사용되는지를 살피는 일은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여러 형태가 하나의 문장 유형에 대응될 수 있는 현상과는 반대로 한 가지 형태가 여러 문장 유형에 대응되는 경우도 있다. 평서문과 지시 명령문에 동시에 대응되었던 '-(는/ㄴ)다'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 가지 형태가 반드시 하나의 문장 유형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한 가지 문장 유형이 하나의 형태만을 종결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은, 중화체에 대한 논의가 형태별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전체의 체계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시각을 필요로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나아가 중화체에 대한 논의에서 얻은 이러한 시사점은 문체법 전반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일상적 글말 장르에서의 중화체 분석

앞 장에서는 본 연구를 위하여 구축한 말뭉치에서 귀납적으로 중화체의 문장종결 형태들을 추출하고, 각각의 형태들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기능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 장에서 수행한 이러한 분석은 언어 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본 장에서는 텍스트 장르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즉 각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가 사용되는 빈도는 어떠한지, 사용되는 중화체의 형태들의 분포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5.1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각 장르별로 중화체 형태의 출현 빈도를 비교, 기술하고 5.2에서는 문체 선택 자질이 각 장르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5.3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각 장르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5.1 장르별 정량적 분석

각 텍스트 장르의 문장종결부에서 나타나는 문체적 특성은 장르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각 장르에 따라서 중화체 종결형이 나타나는 빈도도 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장르에 따른 종결형의 빈도수 및 해당 종결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텍스트 장르에서 주로 어떠한 문체가 선호되어 사용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말뭉치 자료에서 나타난 종결형의 문체들을 중화체, 화계체,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서 해당 빈도 및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8> 텍스트 장르별 각 문체의 빈도수 및 비중

장르	중화체		화계체		기타		총합계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빈도수	비중
PPT	570	100%	0	0%	0	0%	570	100%
계약서	133	40%	202	60%	0	0%	335	100%
공문	346	91%	35	9%	0	0%	381	100%
공지사항	168	53%	152	48%	0	0%	320	100%
매뉴얼	418	66%	211	34%	0	0%	629	100%
법률규칙	321	100%	0	0%	0	0%	321	100%
블로그	46	11%	346	86%	12	3%	404	100%
신문표제	439	85%	33	6%	43	8%	515	100%
업무문서	354	100%	0	0%	0	0%	354	100%
일기	351	87%	25	6%	27	7%	403	100%
총합계	3,146	74%	1,004	24%	82	2%	4,232	100%

위의 표에서 중화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장르는 프레젠테이션 자료(PPT)와 법률 및 규칙, 그리고 업무 문서의 세 가지 장르였다. 이들 장르에서는 모든 문장의 종결형이 중화체로 표현되어 100%의 비중으로 중화체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세 장르는 중화체의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장르 다음으로 중화체가 많이 사용된 장르는 공문(91%), 일기(87%), 신문 표제(8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텍스트 장르에서 나타난 중화체 종결형의 비중이 약 74%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세 장르는 모두 전체 텍스트 장르 자료의 평균치보다 높은 비중으로 중화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장르 역시 중화체가 사용되는 장면의 특성을 띠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화체의 비중이 절반 안팎인 40%~60% 사이를 차지하지만 전체 텍스트 평균치에는 못 미치는 장르로는 매뉴얼(66%)과 공지사항(53%), 그리

고 계약서(40%)가 있었다. 이들 세 장르에서는 중화체의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을 모두 화계체가 차지하여서 특수한 기타 종결 형태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동일한 텍스트 장르 내에서 중화체와 화계체가 각각 절반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 장르는 문체 선택에 있어서 장르 내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은 동일한 텍스트 내에서 경우에 따라 문체가 달리 쓰이기도 하고 한 장르를 이루는 텍스트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텍스트 간에 변이가 관찰되기도 하였는데, 전자는 텍스트 내 변이, 후자는 텍스트 간 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뒤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중화체의 빈도가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난 장르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이었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중화체가 불과 11%의 비중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텍스트 전체에서의 중화체의 비중이 74%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낮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체적 측면에서 나머지 텍스트 장르들과 가장 상이하며 동떨어져 있는 장르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이 유독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이유 역시 후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가 사용된 비중이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의 순서대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화체의 사용 정도에 따라 각 텍스트 장르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표로 나타내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9>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가 사용되는 정도

1그룹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법률 및 규칙 업무 문서
2그룹	공문 일기 신문 표제
3그룹	매뉴얼 공지사항 계약서
4그룹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 중화체가 사용되는 정도

한편, 각 텍스트 장르마다 중화체가 선호되는 정도 뿐 아니라 사용되는 중화체 종결형의 분포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공문이나 매뉴얼, 법률 및 규칙 등의 장르에서는 주로 '-(는/ㄴ)다'가 사용되었지만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에서는 '-(는/ㄴ)다'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문문 형태인 '-(느)ㄴ가, -나'는 신문 표제나 업무 문서 등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장르에서는 의문문 자체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어/아/여' 연결형에 의한 중화체는 신문 표제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기' 종결형 역시 신문 표제나 일기와 같은 특정 장르에서만 나타나서 좁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서술명사에 의해 종결되는 문장은 거의 모든 장르에서 고루 발견되었는데, 유독 계약서에서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각 텍스트 장르마다 사용되는 중화체 종결형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 텍스트 장르별 중화체 종결형의 분포

장르	중화체 종결형

PPT 자료	-(으)ㅁ, 서술명사
계약서	-(으)ㅁ, -(는/ㄴ)다
공문	-(는/ㄴ)다, 서술명사
공지사항	-(으)ㅁ, 서술명사
매뉴얼	-(으)ㄹ 것, -(으)ㅁ, -(는/ㄴ)다, 서술명사
법률, 규칙	-(는/ㄴ)다, 서술명사
블로그	-(으)ㅁ, -(는/ㄴ)다, 서술명사
신문표제	-(으)라, -(으)ㅁ, -기, -(느)ㄴ가?, -나?, -(는/ㄴ)다, -도록, 서술명사, -어/아/여
업무문서	-(으)ㄹ 것, -(으)라, -(으)ㅁ, -기, -(느)ㄴ가?, -(는/ㄴ)다, 서술명사
일기	-(으)ㅁ, -기, -다, 서술명사

한편, 이처럼 각각의 종결형마다 그 분포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종결형들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면, 각 종결형이 주로 사용되는 장르가 어떠한 것인지 역시 포착해낼 수 있다. 아래 표는 이를 위하여 각 종결형의 전체 빈도 대비 장르별 빈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21> 중화체 종결형의 장르별 분포 (단위: %)

구분	PPT	계약서	공문	공지사항	매뉴얼	법규	블로그	신문표제	업무문서	일기
-(으)ㄹ 것	0	0	0	0	33	0	0	0	67	0
-(으)라	0	0	0	0	0	0	0	64	36	0
-(으)ㅁ	58	4	0	3	3	0	2	1	29	1
-기	0	0	0	0	0	0	0	7	15	78
-(느)ㄴ가?	0	0	0	0	0	0	0	90	10	0
-나?	0	0	0	0	0	0	0	100	0	0
-(는/ㄴ)다	0	9	2	0	31	24	3	7	4	20
-도록	0	0	0	0	0	0	0	100	0	0

명사	28	0	24	12	1	0	0	17	14	4
-어/아/여	0	0	0	0	0	0	0	100	0	0

위의 표를 통하여 동일한 문장 유형을 만드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각 장르마다 선호되는 형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명령문을 만드는 명령형 종결형들을 살펴보면, '-(으)ㄹ 것'은 매뉴얼과 업무 문서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으)라'는 신문 표제와 업무 문서에서만 사용되었다. 또한 '-기'는 신문 표제, 업무 문서, 일기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은 일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마지막으로 '-도록'은 모두 신문 표제에서만 사용되어서 명령형 문장종결 형태들 중에서는 가장 뚜렷한 장르적 특수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서형의 경우에도 각 형태마다 그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으)ㅁ'의 경우 절반 이상인 58%가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사용된 것이었고 '-어/아/여' 연결형의 경우 100%가 신문 표제 장르에서만 사용된 것이어서 장르적 특수성이 보였다. 반면에 서술명사나 '-(는/ㄴ)다'에 의한 문장은 거의 모든 장르에서 고른 분포를 보여서 장르적 변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텍스트 장르들은 중화체가 사용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중화체로 어떤 개별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있어서도 서로 달랐는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해당 장르가 가지고 있는 문체 선택 자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장르마다 발생하는 이러한 차이가 해당 장르의 어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5.2 각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

중화체 구현 형태들이 각 텍스트 장르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3.2에서 설정한 문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각 장르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화체도 문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문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자질들에 따라서 중화체가 선택될 수도,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5]

먼저 [±단절성] 자질에 있어서 [-단절성]을 갖는 장르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이 있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은 댓글을 통해서 독자와의 거의 동시간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메시지 수용자와의 관계가 단절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장경현(2010)에서도 이러한 이유에서 블로그 게시글은 단절성이 낮고 연계성이 높다고 하였다. 블로그 게시글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들은 모두 독자와의 즉각적인 의사 교류 및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절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단절성]은 글말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성 중 하나이므로 글말로 구성된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들이 대부분 [+단절성]을 갖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둘째로 [±수용자 상정] 자질에 있어서는 일기를 제외한 모든 장르가 [+수용자 상정] 자질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일기는 본질적으로 독자가 있을 것을 기대하거나 전제하고 작성되는 글이 아니므로 [-수용자 상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기를 제외하고 [+수용자 상정]인 다른 모든 장르들은 [±수용자의 특정성]과 [±수용자 지향성]의 하위 자질에 의해서 재차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수용자의 특정성]에 있어서는 계약서만이 [+수용자 특정성] 자질을 갖는다. 물론 계약서는 대개 어떤 개인이 아닌 상대적으로 폭넓은 수용자를 특정하는 것이기는 하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면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기업의 고용 계약서라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5) 문체 선택 자질에 대해서는 앞서 보였던 <표 11> 참조.

소비자 약관이라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그 대상이 된다. 이처럼 해당 계약에 관련된 소수의 당사자만을 메시지의 수용자로 특정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정성] 자질을 부여할 수 있다.

수용자를 상정하고 있는 장르들에 관련된 또다른 하위 자질은 [±수용자 지향성]이다. 이 자질은 메시지의 생산자가 수용자를 얼마나 고려하고 배려하는지에 관련된 것인데, 이는 주로 메시지 수용자와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 장르 중에서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그리고 일부 계약서 장르에서 이러한 특성이 보인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은 특정되지 않은 독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 대다수인데, 수용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존대법을 사용하여 독자에 대한 배려를 표현하고 있다. 계약서 중에서도 계약 당사자 중 생산자가 미리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배려하여 대단히 격식적인 문체로 공대법을 실현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메시지의 생산자와 수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메시지의 생산자가 수용자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자 지향성]의 자질을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자질인 [±매체 제약성]에 있어서는 신문 표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이 [+매체 제약성] 자질을 갖는다. 신문 표제의 경우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최소의 음절로 가능한 정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언어 표현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역시 한정된 공간 안에 글과 도표 등을 어우러지게 배치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이러한 제약이 언어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자질에 있어서는,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과 일기를 제외한 모든 장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두 장르의 경우 사적인 매체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의사 표현의 성격을 띠므로 [-공공

성] 자질이 부여된다. 이상 설명한 장르별 문체 선택 자질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2> 장르별 문체 선택 자질

	[±단절성]	[±수용자 상정]	[±수용자의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매체 제약성]	[±공공성]
신문 표제	+	+	−	−	+	+
블로그 게시글	−	+	−	+	−	−
공지사항	+	+	−	−	−	+
계약서	+	+	+	−	−	+
일기	+	−	·	·	−	−
법률 및 규칙	+	+	−	−	−	+
공문	+	+	−	−	−	+
매뉴얼	+	+	−	−	−	+
업무 문서	+	+	−	−	−	+
PPT	+	+	−	−	+	+

5.3 텍스트 장르별 세부 분석

이제까지 각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가 사용되는 빈도 및 그 비중을 정량적으로 살펴본 후에 각각의 장르들이 문체 선택 자질에 있어서 어떠한 자질값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이제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에 기반하여 각각의 텍스트 장르들이 중화체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5.3.1 신문 표제

신문에 나타나는 장르는 크게 표제, 기사, 광고의 세 가지로 흔히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간결성을 위한 생략과 축약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표제의 문체적 특이성은 비교적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예를 들어 박갑수·이주행·이석주(1990)에서는 신문 표제를 객관적 표제어 주관적 표제로 나누어 기사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요약하여 드러내는 것을 전자에, 기사 내용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양태나 기사를 읽은 후의 독자의 예상되는 감정을 반영하는 것을 후자에 할당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정여훈(2006)은 신문 표제를 정보 전달형과 관심 유도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정보 전달형은 객관적 표제에, 관심 유도형은 주관적 표제에 각각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 표제 중에서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화체가 특히 잘 나타나는 것은 주관적 표제보다는 주로 객관적 표제이다. 주관적 표제에는 필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수한 양태 표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0만 원대 초콜릿이라니'와 같은 표제는 지나치게 비싼 초콜릿 가격에 대한 놀라움 혹은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라니'와 같은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부류의 종결형을 모두 문체적 특성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신문 표제 중에서도 객관적 표제에 주로 우리의 관심인 중화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표제에 나타난 중화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2) 가. 러시아 체첸을 침공하다.

나. 시민 단체 실무자 방북 허용 촉구.

다. 강우일 주교, 서강대서 명예 박사 학위 받아.

라. 朝鮮父老에게 告함.

마. 取得稅 등 稅率 낮추라.

바. 늘어나는 消費에 過不足 없도록.

사. 음주 운전 언제 뿌리 뽑나.

아. 영광 原電 5·6호기 무엇이 문제인가.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신문 표제는 가장 많은 종류의 중화체 종결형이 사용되는 장르인데, 위의 예문에서도 모든 문장이 각기 다른 중화체 종결형을 사용하고 있다. (22가~라)는 모두 서로 다른 종결형을 취한 평서문이며 (22마, 바)는 서로 다른 종결형을 취한 명령문, 그리고 (22사, 아)는 의문문이다.

신문 표제에 나타나는 이러한 중화체는 신문 표제가 갖는 문체 선택 자질 중 [-수용자의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신문 표제는 수용자 상정에 있어서는 [+수용자 상정] 자질을 가지므로 만일 상정된 수용자가 특정인이나 집단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수용자와 필자와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적절한 화계가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중화체가 선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문이 가지는 공공매체의 성질이 수용자가 특정되기 어렵게 하며, 따라서 특정된 수용자를 배려하거나 염두에 두는 식의 기술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문이 가지는 이러한 공공매체로서의 특징은, [+공공성]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언론 매체의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중립적이며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회의 통념이 신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문 매체가 [+공공성]을 가지는 문체를 지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문 표제는 제한된 공간 안에 최소한의 언어로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도 해당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매체 제약성이 큰 장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신문 표제는 매체에 따른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장르들에 비해서 언어의 경제적 사용에 주

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22다)와 같이 '-어/아/여'로 종결되는 문장이 유독 여기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문 표제에서 유독 다양한 중화체 종결형이 나타나는 것은 신문 표제의 공공적 성격 뿐 아니라, 신문 표제가 가진 상당한 정도의 매체 제약성에도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신문 표제에서만 나타나는 종결형인 '-어/아/여'는 화계를 중화시켜 주는 것과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일 외에도 신문 기사와 신문 표제를 연결해 주는 역할 역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3) 가. 소쩍새마을 장애인 26일 3쌍 화촉밝혀.
나. 우리밀 밀사리 한마당 펼쳐져.
다. 인천 가톨릭 합창제 성황리 열려.

(23)의 예문들은 모두 '-어/아/여' 연결어미를 종결형으로 취하고 있는 신문 표제인데, 이들 표제는 해당되는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아/여' 연결어미에 의해 문장종결이 표현된 신문 표제는 이후에 올 신문 기사와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어 표제와 기사 간의 긴밀성을 높여 주는 역할 또한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3.2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은 최근 파워 블로거의 등장과 함께 블로그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중요한 장르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은 덧글이나 댓글을 통하여 독자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절성] 자질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진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종래에는 글말이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겨져 왔던 독자와의 시간적 거리나 단절성을 극복한 장르라는 점에 그 독특성이 있다. 또한 이렇듯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잠재적 독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이 수용자 지향성을 띠도록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는 중화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의 말뭉치 자료에서는 중화체가 매우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문장은 '-어/아요, -(습/ㅂ)니다'와 같이 청자를 대우하는 화계가 나타나는 화계체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잘 드러난다.

(24) 가. 이 제품도 한국에 안 들어가는 메이블린 제품입니다.
나. 보조금도 한 푼 못 받고 거리를 헤매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얼마 못 받는 것 같더군요.
라. 저는 전혀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마. 이쁜 조명 받았으니 거실에 얼른 변화를 주어야겠어요.

위의 예문에서는 모두 '해요체', 혹은 '합쇼체'가 사용되었다.[16] 그렇다면 왜 '해체'와 같은 반말체는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 대부분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들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연령대의 집단만을 독자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높임법의 사용은 블

16) 물론 (5라)의 '-답니다'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합쇼체는 아니다. 그러나 '-답니다'를 '-다고 합니다'에서 문법화된 형식이라고 본다면 문체론적 분류의 틀 안에서는 합쇼체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답니다'를 '-다고 합니다'의 문법화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으로 대표적인 연구는 남기심(1973)이 있다.

로그 게시글 메시지의 독자가 필자보다 높은 연령이나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의,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메시지 수용자를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높임말체가 반말체보다 무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17] 또한 블로그 게시글이 가상의 독자들을 고정적 독자로 확보하려 하거나, 많은 스크랩수나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책의 한가지로서 [+수용자 지향성]을 지니는 문체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서 발견된 특이한 점은, 특정 영역의 블로그 게시글에서만은 유독 '-(는/ㄴ)다'체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다.

(25) 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나. 해변을 걸으면 옴폭 발자욱이 생기고 패인 그곳에 파도가 밀려와 쓸고 가버린다.

위와 같은 예문은 모두 여행을 주제로 한 블로그 게시글에서 필자가 자신의 여행담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이 문장들은 모두 직설법 현재가 실현된 문장으로서, 이른바 '역사적 현재'라고 불리는 용법으로 사용된 현재 시제형 문장들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 현재란 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17) Carol Myers-Scotton(2000)은 특정 언어나 특정 문체를 선택하는 것에는 상황에 따라 무표적인, 혹은 유표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예컨대 아프리카 공용어인 스와힐리어와 기타 여러 부족의 언어가 사용되는 이중 언어 사회의 경우,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부족 사람인지 모를 경우 가장 무표적인 언어는 스와힐리어이지만, 어떤 단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부족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경우에는 가장 무표적인 언어는 해당 부족의 언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code-switching이 발생한다. 이중 언어 사회에서의 코드 스위칭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단일 언어 사용 환경에서는 문체에 적용될 수 있다.

표현할 때 사용되는 현재 시제 표현인 바, (25)와 같은 문장들은 필자들이 이미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와 과거의 여정을 기술하는 시점에서 실제로는 과거 시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중화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블로그 게시글 장르에서도 여행을 주제로 한 블로그 게시글에서만은 유독 화계가 중화된 '-(는/ㄴ)다'체가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여행을 주제로 한 블로그 게시글에서 '-(는/ㄴ)다'체가 사용되는 것은 해당 텍스트가 정보전달적 성격보다는 자기고백적 성격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는/ㄴ)다'의 형태가 자기고백적 성격과 연결된다는 점은 앞서 형태별 분석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격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블로그 게시글 장르에서도 '-(는/ㄴ)다'가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단절성]을 가지는 블로그 게시글 장르의 특징상, 이러한 중화체를 그 문체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수용자와의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짐짓 모른 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종류의 블로그 게시글과는 달리 여행 주제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러한 '모른 체하기'의 전략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해당 주제의 특성상 정보전달적 기능보다는 자기고백적 기능이 더욱 주효하기 때문이다. 요리나 화장법, 추천할 만한 음식점, 인테리어 방법, 최신 전자기기 사용 후기 등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블로그 게시글들은 메시지의 수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을 주제로 한 글은 대체로 자신의 개인적인 여행 경험을 마치 일기처럼 사진과 함께 정리하는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하게 여행을 주제로 한 블로그 게시글이라 하더라도, 그 텍스트의 목적이 독자에게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 주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 '모른 체하기' 전략이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여행을 주제로 한 블로그에서도 역시 중화체가 사용되지 못한

다.

5.3.3 공지사항 게시글

공지사항 게시글은 중화체 대 화계체의 비율이 각각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 장르이다. 이러한 점은 공지사항 게시글이 [+공공성]과 [+수용자상정]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지사항 게시글은 전반부에는 해당 글의 수신인, 혹은 해당 글에서 담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 사람을 수용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인해 공지사항 게시글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화계체가 사용된다. 아래 예문이 모두 이러한 문장에 해당되는데, 해당 텍스트의 전반 도입부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장들인 것을 알 수 있다.

(26) 가.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제 한도액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변경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글로벌 미디어의 중심 KBS가 디지털 방송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선발합니다.

위와 같은 문장들은 모두 공지사항 게시글의 전반부에 나타나서 해당 메시지의 수용자로 상정된 예상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전달될 정보 내용에 대하여 주목하도록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공지사항 게시글의 전반 도입부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장과 더불어서 글의 후반부에 별도의 유의사항이나 부가적 정보를 해당 메시지의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도 역시 화계체가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27) 가. 의문사항은 다음 안내 전화나 Email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화계체는 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직접적인 주의를 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지사항 게시글이 가지는 [+공공성]의 성격은 공지사항 게시글의 본문 내용에 있어서는 중화체가 나타나도록 만든다. 아래의 예문이 모두 이러한 문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할 때는 화계가 중화된 중화체가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8) 가. 휴학생의 경우 2010년 1학기, 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휴학생 가입자에 해당함.

나. 해당사항 선택 후 첨부파일 미첨부시는 최종제출이 불가능함.

다. 제출된 원고는 내부 평가를 통해 원고료 차등 지급.

라. 본인이 작성한 기사 또는 논문 등 자료 제출 시 심사에 고려.

마. 입사 후 소정의 전문교육 이수 후 업무 배치.

바. 이후 일정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공지사항 게시글에 나타난 중화체 문장들은 거의 모두 평서문으로서 '-(으)ㅁ'과 서술명사의 두 가지 종결 형식만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지사항 게시글의 평서문 문장에서 '-(는/ㄴ)다'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으)ㅁ'이나 서술명사가 가지는 간결성과 '-(는/ㄴ)다'가 가지는 자기고백적, 혹은 독백적 뉘앙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는/ㄴ)다'가 독백적 뉘앙스를 가진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는/ㄴ)다'의 장르별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중화체 종결형별로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는/ㄴ)다'는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기 장르를 제외한 장르들은 계약서, 매뉴얼, 법률 및 규칙 등의 장르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르에서는 법률 및 규칙 장르를 제외하고는 '-(는/ㄴ)다'가 주로 지시명령문을 위하여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서문 문장을 위해 '-(는/ㄴ)다'가 사용된 경우는 대부분 수용자를 상정하지 않은 독백적 장르인 일기 텍스트에 편중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는/ㄴ)다'에 의한 평서문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8)의 예문들은 아래와 같이 '-(는/ㄴ)다'에 의해 종결되는 문장으로 교체하여도 그 문장이 가지는 의미나 뉘앙스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

(28') 가. 휴학생의 경우 2010년 1학기, 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휴학생 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해당사항 선택 후 첨부파일 미첨부시는 최종제출이 불가능하다.
다. 제출된 원고는 내부 평가를 통해 원고료 차등 지급한다.
라. 본인이 작성한 기사 또는 논문 등 자료 제출 시 심사에 고려한다.
마. 입사 후 소정의 전문교육 이수 후 업무 배치한다.
바. 이후 일정은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한다.

(28)과 (28')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명사화된 종결부를 가진 문장들과 '-(는/ㄴ)다'에 의해 서술된 문장들 사이의 차이는 그 의미 기능의 차이에 있다기 보다는 명사화된 종결부에 의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이점

을 가지고 있어서 '-(는/ㄴ)다'에 의한 서술보다 요약적이며 간결하다는 인상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지시명령문이 아닌 평서문의 경우에 특별히 자기고백적인 뉘앙스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는/ㄴ)다'보다 명사화된 종결형이 선호될 수 있다.

5.3.4 계약서

계약서 장르는 어떤 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는 양자가 서로 합의하기로 정해 놓은 조건과 규칙들을 명시해 놓은 서류이다. 이러한 계약서에서는 계약을 맺는 양측이 '갑, 을'과 같이 추상화된 인물로 등장하는데, 하나의 계약서에 관계되는 당사자가 갑과 을로 나뉜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들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문서 텍스트들에서는 해당 문서의 문체를 결정짓는 데 관여하는 당사자가 필자와 독자이다. 필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해당 글의 화계가 정해지기도 하고 화계가 무표적으로 표현된 중화체가 선택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서 장르에 있어서는 필자는 사실상 이러한 문체를 결정짓는 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계약서 장르에서 문체를 선택하는 자질을 결정짓는 데 기여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관계이며, 계약서의 문구를 작성하는 필자는 계약 당사자인 갑이나 을이 될 수도 있지만 공증인과 같은 제삼자가 될 수도 있고 미리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는 문장이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계약 당사자인 갑이나 을이 계약서의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그 사람은 메시지의 전달자이자 동시에 수용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관계가 아닌 해당 문서를 작성한 자가 해당 계약 관계

에 있어서 갑의 위치에 있는지 을의 위치에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18)]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동일한 계약서 장르에 속하는 텍스트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화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화계체가, 어떤 경우에는 화계가 중화되어 나타나는 중화체가 선택되어 사용되는 차이가 생긴다. 실제 계약서 말뭉치 자료에서는 중화체가 40%, 화계체가 60%로 사용되어서 양자 중에 어느 것이 더 선호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계약서 자료에서 이처럼 화계체와 중화체가 비등하게 나타난 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공지사항 게시글 장르에서 한 텍스트 내에서 도입부와 본문이 서로 다른 문체를 사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각 계약서 텍스트마다 다르게 설정된 갑을 관계에 따라 다른 문체가 선택되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공지사항 게시글 장르가 텍스트 내 변이를 보여주었다면 계약서 장르는 텍스트 간 변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9) 가.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나.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다. 기타 임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8) 이때 '갑'은 사회 통념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를, '을'은 그 반대편에 있는 계약 당사자를 일컫는 것이다. 형식상 계약을 맺는 쌍방 중 어느 쪽을 '갑'으로, 어느 쪽을 '을'로 정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계약을 통해 돈을 지불하는 쪽이 우위에 있다고 보아 '갑'을, 돈을 지불 받는 쪽이 '을'을 할당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예문에서 (29가~29다)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이며 (29라~29바)는 회사가 어떤 서비스 혹은 상품을 제공하면서 이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맺은 계약서, 즉 소비자 약관이다. (29)의 예문은 모두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기로 한 내용과 규칙을 나열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갑과 을이 서명이나 날인을 통하여 내용을 확증하는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29가~29다)의 경우에는 '-(는/ㄴ)다'에 의한 중화체가 사용된 반면 (29라~29바)에는 '-(으)ㅂ니다'가 사용되어 존대의 화계가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같은 계약서라 하더라도 다른 문체가 선택되는 것은 바로 해당 계약서에 날인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의 역동성에 기인한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갑'의 입장인 회사 관계자가 계약서의 내용 및 문구를 선정하고 작성하여 '을'의 입장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용자 지향성]에서 [-수용자 지향성]의 성격에 가깝다. 반면에 소비자 약관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및 문구를 선정, 작성한 회사 측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위치에 해당하므로, '갑'인 소비자를 메시지의 수용자로 상정한 상태에서 [+수용자 지향성]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약서의 작성자가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아닌 공증인이나 중개인인 경우, 혹은 제삼자에 의해 미리 작성되어 있는 형식을 차용한 경우라면 어떨까? 아래 예문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30) 가. 관리비 월 5만원 (수도사용료 포함)은 월차임과 별도임.
나. 월세는 매월 지정일에 임대인계좌에 입금키로 함.

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180,000,000원)이 설정된 상태임.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형식에 맞춰 중개인이 작성해 놓은 것을 사용한다. 이 경우 명사형 어미 '-(으)ㅁ'을 문장종결형으로 사용함에 따라 중화체 문체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작성한 것이 아닌 계약서의 문체를 통하여서 계약서 장르의 문체에서 보다 무표적인 문체는 화계체가 아닌 중화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계약서 작성자가 계약 당사자 중 '을'의 위치인 경우에만 유표적으로 메시지의 수용자를 배려하여 존대의 화계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약서 장르에서 중화체가 보다 무표적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계약서 장르가 [+공공성] 자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계약서는 각서와는 달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도 가능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공공성] 자질을 갖는 공적 문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공적인 문서로서의 특성은 주로 중화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계약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화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표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하여 조성한 말뭉치 장르에서 화계체가 중화체보다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은, '을'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유표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19]

5.3.5 일기

19) 본고에서 수집한 계약서 말뭉치 중 소비자 약관에 해당되는 말뭉치의 규모는 약 4500어절로 전체 계약서 말뭉치의 70 이상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비자 약관 말뭉치의 비중이 유독 큰 것에는 기타 계약서 텍스트들은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일기는 본질적으로 자기고백적 성격을 가지는 장르이므로 입말의 독백과 함께 [-수용자상정] 자질을 갖는다. 수용자를 전제하고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것은, 수용자를 특정하거나 수용자 지향성을 가지는 것이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일기는 메시지의 수용자와는 가장 동떨어져 있는, 자기고백적인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르라고 볼 수 있다.

수용자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일기에서는 화계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문장이 중화체로 표현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말뭉치 자료에서는 중화체가 87%의 비중으로 사용되어서 이러한 추측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일기 장르에서 나타나는 중화체 문장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31) 가. 남이 아닌 나를 바꾸기.

나. 대만/싱가폴 중에 한 곳을 여름휴가 중에 다녀오기.

다. 멋진 선배님, 일만 잘 하시는게 아니라 술도 잘 마셨다.

라. 남편을 만나 깊이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마. 이것은 내 거듭된 실패 위에 또 하나 실패를 쌓는 일이었다.

바. 독서는 역시 30권 이상이 목표.

사. 편성으로서의 의무만 마구 던져지고 도대체 편성이 뭔지 모르겠는 요즘.

(31가, 나)는 명사형 어미 '-기'가 종결형으로 사용된 문장으로, 모두 스스로에게 하는 명령, 즉 다짐이나 스스로 성취하고 싶은 계획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기'가 가지는 이러한 다짐의 함축은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데, 일기 장르에서는 대개 해당 명령을 내리는 사람과 명령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볼 때, '-기'가 일기 장르에서 유독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31다, 라, 마)는 모두 '-(는/ㄴ)다' 종결형으로 표현된 중화체 평서문인데, 이처럼 '-(는/ㄴ)다'에 의해 종결된 문장은 일기 장르 전체에서는 64.7%를, 일기 장르에 나타난 전체 중화체 문장 가운데에서는 74%를 차지하여서 일기 장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 형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기 장르에서 평서문을 위해 '-(으)ㅁ'이나 '-어/아/여', 서술명사 등이 아닌 '-(는/ㄴ)다'가 유독 선호되는 것은 '-(는/ㄴ)다'가 가지는 자기고백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ㄴ)다'는 자기고백적 뉘앙스로 인해서 이처럼 일기나 블로그 게시글 중 여행 후기와 같은 장르의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31바, 사)는 모두 명사로 해당 문장을 끝맺고 있는데 이들은 뒤에 계사 '-이다'가 생략된 문장으로 여겨진다. 일기 장르에서는 다른 장르에서와는 달리 서술명사로 끝나는 문장은 등장하지 않는 반면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장은 등장하고 있다. 서술명사 종결형의 부재는, 일기 장르에서는 서술명사로 종결될 법한 문장들이 모두 자기고백적 종결형인 '-다'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다'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명사형 종결문들은 일기가 가지는 독특한 장르적 특성이라고 생각된다. 일기는 애당초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글에 비해 문장이 필요한 문장 형식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정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완성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31바, 사)와 같은 문장 역시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이처럼 '못갖춘 문장'은 이 외에도 (32)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못갖춘 문장'의 존재는 일기 장르에서 화계체도, 중화체도 아닌 기타 종결형의 문장이 약 7%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도록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32) 가. 구닥다리같다고. 뒤쳐진다고. 따라오지 못한다고.
나. 딱 그만큼이 당연한 말인데.
다. 선생님들도 당연히 내가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라. 비슷한 시기에 다들 비슷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서.
마. 엄청나게 고도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5.3.6 법률 및 규칙

법률 및 규칙 장르는 다른 연구들에서 흔히 법조문이라고 일컬어진 장르와 유사한 장르이다. 그러나 법조문이라고 했을 때는 헌법 및 법률, 대통령 명령 및 조례 등과 같이 국가 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만을 가리키는 함의가 있어서 사적 기관의 내규나 정관과 같은 문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 만일 국가 기관이라는 하나의 집필자에 의해 작성된 문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국가 기관이라는 특정 집필자의 특성이 해당 법률이나 규칙, 내규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장르 자체의 특성으로 오도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조문이라는 용어 대신 법률 및 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장르를 규정하였고 말뭉치 자료 역시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 뿐 아니라 사기업의 내규, 정관 등을 함께 수집하여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말뭉치에서 중화체 문장은 전체 문장의 100%에서 나타났다. 이는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는 단 한 문장의 예외도 없이 모두 중화체가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이 장르가 중화체의 특성과 매우 잘 어울리는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법률 및 규칙 장르는 [+단절성], [-수용자의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공공성] 등의 문체 선택 자질을 가진다. 우선 독자와 시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성질이 강하고 수용자를 상정하기는 하나 그 수용자가 어떤 특정인이 아닌 해당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수용자와 필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해당 문서에서 전달하고 있는 정보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고도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매우 공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 중화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자질들인데, 메시지의 수용자와 메시지 전달자와의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공식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정 화계가 선택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 사용된 중화체 문장 중의 무려 98%는 '-(는/ㄴ)다' 종결형을 사용한 문장이었다. 나머지 불과 2%를 차지하는 문장만이 '-(는/ㄴ)다'가 아닌 서술명사 종결형을 채택하였다.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 추출한 예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3) 가. 이 개정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라.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마. ②부터 <61>까지 생략.

(33가~라)는 모두 '-(는/ㄴ)다'가 설명법의 문장종결형으로 사용된 전형적인

문장들이다. 윤석민(2000)에서는 '-(는/ㄴ)다'는 설명법 문장종결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면서 '-(는/ㄴ)다'의 의미특성은 [+확실성], [+객관성]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성격이 법률 및 규칙이라는 장르의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대부분의 문장이 통일된 종결형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문서들이 대단히 통제된 나름의 형식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장르의 텍스트들은 해당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 맘대로 문체나 문장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거의 주어지지 않으며 표준화된 규격과 문체에 맞추어 기술되는데,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 나타난 매우 통일적인 문장 종결형의 사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된 문장의 사용은 법률 및 규칙 장르가 가지는 높은 권위성에서 그 원인이 있다. 법률 및 규칙 장르는 해당 문서에서 전달하고 있는 정보 내용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결문 등의 장르와 함께 해당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권위의 정도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장르에서 보이는 '-(는/ㄴ)다'의 압도적인 사용 빈도 역시 이와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 다시 말해 '-(는/ㄴ)다'의 압도적인 사용 빈도는 '-(는/ㄴ)다'라는 형태 자체가 가지는 규범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서 '-(는/ㄴ)다'가 가지는 대표성으로 인해 사전에서 용언 표제어를 등재할 때 '-(는/ㄴ)다' 활용형이 선택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다시피 '-(는/ㄴ)다'는 매우 규범적으로 공인된 형태 중의 하나이다. 언어의 일상적 사용과 언어의 규범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니와,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 보여주다시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여러 중화체 종결형 중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형태는 거의 '-(는/ㄴ)다'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서술명사나 명사형 어미, 연결 어미 등은 기존의 규범적 시각에서 볼 때에 문장 종결 형식이라고 인정되지 못해 온 편이며 다만 해

당 형태의 부차적이며 특이한 사용례 정도로 치부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는/ㄴ)다'를 제외한 기타 중화체 종결형들은 매우 높은 권위와 규범적 특성을 지니는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 나타나기에 껄끄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 서술명사 종결형은 (33마)와 같은 문장의 형태로만 나타났다. 이러한 문장을 법률이나 규칙 자체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기술 방식에 대한 부가적이며 메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33마)가 전달하는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②번 항목부터 <61>번 항목까지는 생략하였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지 ②번 항목부터 <61>번 항목까지를 생략해야 하는 것이 독자가 지켜야 할 규칙의 내용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달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본문을 이루는 다른 문장들과의 구별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별을 위해서 명사 종결형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모든 문장이 동일한 위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구별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 주로 문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동일하게 중화체 표현 형태인 '-(는/ㄴ)다'와 서술명사 종결형 중에서 보다 부가적이고 첨가적이며 요약적인 느낌을 주는 형태인 서술명사 종결형이 대게 부가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선택된다. 물론 이때 해당 문장이 서술명사로 종결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으)ㅁ'이 대신 선택될 수 있다.

5.3.7 공문

공문 텍스트 장르 역시 매우 높은 비율로 중화체가 사용된 장르 중 하나이다. 공문 장르에서는 중화체가 약 91%의 비중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는 모

두 화계체 중에서 합쇼체가 사용되었다. 공문 장르는 [+단절성], [-수용자의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공공성] 등의 문체 선택 자질을 가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법률 및 규칙 장르의 문체 선택 자질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질을 갖는 장르의 특성이 중화체가 사용되는 환경과 매우 밀접히 관련된다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공문 장르에서는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와는 달리 작은 비중이기는 하나 일부 화계체도 드러난다. 또한 중화체 문장 중에서도 유독 '-(는/ㄴ)다' 종결형에 의한 문장만이 매우 표준적으로 사용되었던 법률 및 규칙 장르에 비해서 공문 장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중화체 종결형이 사용되고 있다. 공문 장르의 텍스트에서 추출한 중화체 문장들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34) 가. 뒷면에 국적과 성명을 기입 후 신청서 소정 위치에 첨부할 것.
나. 선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동시 재학 시에는 박사과정만 신청 가능.
라. 대학은 재단이 관련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4가)는 중화체 명령형인 '-(으)ㄹ 것'이 사용된 명령문이며 (34나), (34다), (34라)는 각각 '-(으)ㅁ', 서술명사, '-(는/ㄴ)다'가 종결형으로 사용된 평서문들이다. 이렇게 다양한 종결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비록 동일하게 중화체의 사용 환경과 관련된 문체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 텍스트는 법률 및 규칙 문서 텍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통제적이며 덜 표준화된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 및 규칙 장르와 공문 장르가 가지는 권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 및 규칙 장르와 공문 장르

모두 어떠한 정보를 서술하여 전달하는 장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이 가지는 강제성이나 권위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해당 문서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권위가 높은 법률 및 규칙 장르의 문장들은 해당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매우 표준화된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공문은 그 텍스트 자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장르를 위한 통제된 양식을 요구하는 정도에 있어서 법률 및 규칙보다는 낮은 요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화체와 잘 어울리는 문체 선택 자질을 가지고 있는 공문 장르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화계체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아래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35) 가. 학생교류를 위해 늘 애를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추신: 국제처에도 같은 서류를 보내 드렸습니다.
다. 모든 제출 서류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비로 한 장 더 보내 주십시오.
라. 2012년도 학생교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해 유학 안내를 보내 드릴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35)의 문장들은 모두 화계체 중에서도 합쇼체의 평서형인 '-(으)ㅂ니다'와 합쇼체 명령문인 '-십시오'가 사용된 문장들이다. 이러한 문장이 사용된 것은 앞서 공지사항 게시글 장르에서 사용된 화계체 문장들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주로 텍스트의 전반부에서 해당 공문을 전달하거나 회람해 줄 사람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실을 주지시키거나 텍스트의 후반부에서 부가적인 사항을 첨가할 때에 사용된 것들이다. 이렇

듯 특수한 역할을 하는 공문의 일부 전반부 및 후반부에서는 [-수용자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을 가지는 공문 텍스트 장르의 특성이 선택적으로 사라진다고 생각된다.

5.3.8 매뉴얼

매뉴얼 장르에서는 중화체가 약 66%, 화계체가 34%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화체의 빈도가 화계체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화체가 선택되기에 더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체 장르의 중화체 평균 빈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는 그리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에서 사용된 중화체 종결형들은 ‘-(는/ㄴ)다’, ‘-(으)ㄹ 것’, ‘-(으)ㅁ’, 그리고 서술명사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95% 이상이 ‘-(는/ㄴ)다’ 종결형에 의해 서술된 문장이어서 나머지 종결형들의 사용은 매우 미미한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매뉴얼 장르에서 보이는 중화체 문장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6) 가. 불규칙 용언의 경우 활용형을 [] 괄호 안에 기술한다.
나.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타나는 속담은 모두 다룬다.
다. ※ 학습자 사전의 ‘좋다’ 부분을 볼 것.
라. (개별 원고 작성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음)
마. (지침의 ‘뜻풀이’편 참조)

(36가, 나)는 ‘-(는/ㄴ)다’가 지시 명령문을 만들어 주는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다. 매뉴얼 장르의 거의 모든 텍스트들은 어떠한 일의 지침이나 방식 등을

제공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지시 명령문들의 나열로 이루어진 텍스트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상과 맞게 중화체 중에서 거의 95%의 문장은 모두 (36가, 나)와 같은 '-(는/ㄴ)다'에 의해 표현된 지시명령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36다, 라, 마)는 모두 부가적이고 첨가적인 내용을 덧붙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앞에 '※'와 같은 특수한 기호를 붙이거나 전체 문장을 괄호로 묶어 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문장의 내용이 첨가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는/ㄴ)다'에 비해서 다른 중화체 종결형들이 가지는 부차적이며 요약적인 뉘앙스는 앞에서도 역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매뉴얼 장르에서는 화계체 역시 34%라는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매뉴얼 장르에서 나타난 화계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7) 가. 벽면 전원에서 빼 둔 플러그를 연결합니다.
나. 우측의 잉크 카트리지 잠금 커버를 엽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가이드 및 고급 가이드 전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라. 기기 위에 어떠한 물건도 놓지 마십시오.

(37가, 나)의 경우 '-(습/ㅂ)니다'에 의해 표현된 지시 명령문이다. 이는 '-다'에 의해 표현된 중화체 지시 명령문에 대응되는 화계체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중화체에서는 '-(는/ㄴ)다'에 의해 지시 명령문이 표현될 수 있다면 합쇼체에서는 '-(습/ㅂ)니다'에 의해 지시 명령문이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7다, 라)에서는 합쇼체의 명령형인 '-십시오'가 사용되었다. 직접적인 명령문 종결형인 '-십시오'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37다, 라)는 지시 명령문이 아닌 명령문이라고 생각되는데, (37다)와 같은 문장은 주로 해당 매뉴얼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지침이나 방식의 내용 외에 메타 텍스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37라)의 경우 직접적인 금지 명령 표현을 통하여서 강력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매뉴얼 장르 안에서 경우에 따라 중화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화계체가 나타나기도 하는 이러한 변이는 공지사항 게시글이나 공문과 같은 장르에서 보였던 텍스트 내 변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텍스트들 사이의 변이, 즉 텍스트 간 변이이다. 즉 각각의 매뉴얼 텍스트들은 해당 텍스트 내적으로는 비교적 일관되게 중화체만을, 혹은 화계체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텍스트들 사이에서 어떤 텍스트는 중화체를, 어떤 텍스트는 화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매뉴얼 장르가 가지는 [+단절성], [-수용자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공공성]의 자질들을 생각해 볼 때, 매뉴얼 중의 어떠한 텍스트들은 중화체가 아닌 화계체를 선택한다는 사실은 조금 의아해 보인다. 이러한 점은 앞서 계약서 장르에서와 동일한 해석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계약서 장르 역시 매뉴얼 장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간 변이가 두드러진 장르였는데, 화계체가 사용된 계약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필자와 해당 메시지의 수용자 간의 사회적 관계가 뚜렷하여 수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화계체가 선택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뉴얼 중에서도 어떤 제품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수용자 지향적인 문체가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말뭉치 자료에서 화계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 텍스트들이었다.

5.3.9 업무 문서

업무 문서는 기업 내에서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 작성되고 전달, 열람, 수용되는 비즈니스 문서를 말한다. 비즈니스 문서의 문체에 대한 연구인 함계임(2009)에서는 업무 문서를 공적인 성격을 갖는 것과 사적인 성격인 것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23> 업무 문서의 종류

구분	종류
공적 문서	보고서, 품의서, 협조문
사적 문서	시말서, 사직서

그런데 위의 표에서 사적 문서에 해당되는 시말서 및 사직서는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문서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 문서들은 업무 문서 장르에서 일단 배제하기로 한다.

이렇듯 사적인 문서들을 제외하고 나면 업무 문서들은 [+단절성], [-수용자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자질값들은 모두 중화체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법률 및 규칙, 공문, 공지사항 게시글 등의 장르의 자질과 동일한 것으로 업무 문서 장르에서도 중화체의 사용 빈도가 높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예상에 부합되게도 업무 문서 장르에서 중화체의 빈도는 100%를 보여 전체 문장에서 중화체 종결형이 관찰되었다. 또한 중화체 종결형 중에서도 '-(으)ㄹ 것, -(으)라, -(으)ㅁ, -기, -(느)ㄴ가?, -(는/ㄴ)다, 서술명사' 등이 모두 나타나면서 신문표제 장르 다음으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중화체 종결형이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업무 문서 장르에서 관찰된 중화체 문장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8) 가. 이메일의 내용은 정확하고 명료해야 할 것.

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주요한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다. 고객, 상사,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라. 아소트가 깨진 후에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 우리가 진출한 사업에서는 반드시 일등을 한다.

바.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경우 매사에 더욱 조심하라.

사. 증시환경 변화에 상응하도록 공시의무사항을 재정비.

(38)의 예문을 통해서 업무 문서에서는 다양한 중화체 문장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든 문장이 평서문이었던 법률 및 규칙 장르나 대부분의 문장이 지시 명령문이었던 매뉴얼 장르 등에 비해 업무 문서에서는 다양한 문장 유형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다양한 중화체 종결형이 관찰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에서 명령문의 경우 '-(으)ㄹ 것, -(으)라, -기'가, 의문문의 경우 '-(느)ㄴ가?'가, 그리고 평서문의 경우 '-(으)ㅁ, -(는/ㄴ)다, 서술명사'가 각각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중화체 종결형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형태는 바로 서술명사였는데, 서술명사의 빈도는 전체의 52.8%라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업무 문서에서 가장 선호되는 종결형은 바로 서술명사 종결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술명사로 종결될 수 없는 문장의 서술부에 주로 나타나는 '-(으)ㅁ' 종결형의 비중까지 합하면 전체의 약 80%에 달한다. 이처럼 서술명사와 '-(으)ㅁ' 종결형이 업무 문서에서 선호되는 것은, 간결하고 요약적인 형식을 선호하는 업무 문서가 갖는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기업의 신입 사원 대상 교육용 자료에는 업무 문서는 서술

식이 아닌 요약형 개조식 표현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표 24> A기업의 교육용 문서에서 발췌한 업무 문서 작성 요령

구분	서술식	개조식
시작	들여쓰기로 시작	부호로 시작
형태	주어, 서술어, 조사로 완성된 문장 구성	명사형의 핵심 키워드의 연결
끝	-다, -요 등으로 끝나고 마침표 있음	-함, -음 등 명사형으로 끝나고 마침표가 없음

이러한 표를 작성한 기업의 교육 담당자가 중화체 문장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 표는 다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업무 문서의 특징을 관찰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업무 문서의 작성은 관례적으로 명사형 종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은 서술명사나 명사형 어미의 종결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요약적이며 경제적인 표현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3.10 프레젠테이션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각적으로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로서 발표의 내용을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보여 주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문서 장르이다. 이러한 장르는 기존에 연구들에서 거의 논의된 바가 없지만 실제 일상적 장면에서 그 쓰임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하나의 장르로 인정되고 그 특성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중화체가 고빈도로 나타났던 여타의 장르들과 마찬가지로 [+단절성], [-수용자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다.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 자체는 상관적 장면이며 발표자와 청중들의 질의 응답과 같은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절성]을 가지며 청중을 배려하여 높이는 화계가 선택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지향성]의 특징을 갖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발화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 자체의 장면과 해당 프레젠테이션을 돕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가지는 특성은 엄연히 구분된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장르적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발화 장면과의 구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장르가 가지는 문체 선택 자질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다시피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중화체가 100%의 비중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로지 서술명사와 '-(으)ㅁ' 종결형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문장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39) 가. 사업 진입 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모색.
나.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관련 부품 소재 분야 발굴.
다. 선진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음.
라. 최근 관련 사업 Transaction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9가, 나)는 서술명사가 사용된 문장들이며 (39다, 라)는 서술명사로 종결될 수 없는 문장인 경우에 '-(으)ㅁ'이 사용된 문장들의 예이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이러한 명사형 종결형만이 선택되는 이유는 업무 문서에서 유독 명사형 종결형이 선호되었던 것과 비슷하다. 앞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단절

성], [-수용자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 [+공공성] 자질을 가진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이에 덧붙여 [+매체제약성] 역시 가진다.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특성상 한정된 공간 안에 최적화된 문구와 도표 등을 보기 좋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매체제약성] 자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매우 간결하고 요약적이며 경제성을 극대화한 문장들이 사용된다. 명사형 종결문은 일반적으로 문장이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며 요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느낌을 전달한다는 점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명사형 종결형들이 매우 선호되어 쓰이는 것이다.

5.4 장르별 분석의 함의

이제까지 각 장르별로 중화체가 사용되는 정도와 어떠한 중화체 종결형이 어떠한 의미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텍스트 장르별로 중화체가 선택되는 정도는 장르별로 어떠한 문체 선택 자질값을 가지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절성] 자질에 있어서는 [+단절성]을 가지는 장르가, [±수용자 상정]에 있어서는 [-수용자 상정]을 가지는 장르가 중화체를 선택하는 정도가 높았다. [-단절성]을 가졌던 블로그 게시글에서 낮은 빈도의 중화체 문장이 나타난 것과 유일하게 [-수용자 상정] 자질을 가졌던 일기 장르에서 중화체 문장이 고빈도로 나타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수용자 상정] 자질값을 갖는 장르들 중에서는 [±수용자의 특정성]과 [±수용자 지향성] 자질에서 모두 음의 자질값을 가지는 경우에 중화체가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이들 자질 중에서 하나 이상의 양의 자질값을 가지는 장르인 계약서와 블로그 게시글 장르에서 중화체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통해 검증된다.

또한 [±매체제약성]은 중화체를 선택하느냐 화계체를 선택하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중화체 중에서도 보다 요약적인 종결형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매체제약성]을 가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장르와 신문 표제 장르에서 모두 '-(는/ㄴ)다'의 사용이 지양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점이 있는 '-(으)ㅁ' 명사형이나 '-어/아/여' 연결형 등이 선택되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에 있어서는 [+공공성] 자질을 가지는 장르일수록 중화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적인 성격의 문서일 경우 수용자 특정성이나 수용자 지향성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중화체 종결형을 선택하여 화계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 자체가 해당 텍스트에 공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공적인 문서의 문장종결형으로는 대개 중화체 종결형이 사용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텍스트 장르가 가진 속성에 따라 중화체가 선택되는 정도나 중화체 중에서도 어떤 문장종결형을 선택하느냐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든 경우에 중화체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이는 정량적 분석에서 언급했다시피 중화체의 빈도가 전체 빈도의 74%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문체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화체에 대한 본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일견 의아한 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하나는 한국어의 문장종결형은 문장을 끝맺는 동시에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과 더불어 화

계의 등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받아들여 온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화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 '단독적 장면' 등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문체가 있다는 식으로 중화체를 간헐적으로 언급해 온 것을 보면, 화계체를 기본적인 것으로 보고 중화체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자 했던 그간의 경향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중화체 문장종결형 중에서도 특수한 일부 종결형, 즉 '-(는/ㄴ)다', '-(으)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체 종결형에 대한 언급을 보인 몇몇 연구들에서도 중화체가 갖는 성격을 '공공성, 격식성' 혹은 '요약성' 등으로 표현해 왔는데 이를 뭉뚱그려서 중화체의 종결형의 속성으로 기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중화체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일기 장르의 경우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요약성의 경우에는 명사형 종결 등 일부 형태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화체 종결형이 격식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법률 및 규칙 장르에서의 쓰임이 유일한데, 이 경우 격식성을 띠는 것이라기 보다는 텍스트 자체가 가지는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다.

이처럼 일부 형태들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되어 왔던 것은, 그간의 연구들에서 언중의 문서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장르 선택을 해 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학생이나 직장인이 폭넓게 이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나 대부분의 비즈니스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업무 문서 장르, 부동산 매매나 근로 계약, 보험이나 소비자 약관 등의 생활의 전 영역에서 접하게 되는 계약서 장르 등 언중의 실제 문서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문학과 비문학, 설명문과 논설문, 학술적 텍스트와 비학술적 텍스트 등으로 매우 상아탑적인 장르의 유형화가 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화체 문장종결형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서술명사 종결형이나 '-(으)ㅁ' 종결형과 같은 형태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어 문체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언중의 일상적 문서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화체에 대한 연구가 보다 본격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보다 한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기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6. 결론

이제까지 화계의 등분을 표현하는 언어 요소가 나타나지 않아 화계가 중화되어 나타나는 문체인 중화체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문체를 '중화체'라고 명명하고 이를 한국어의 문체법에서 당당하게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중화체의 문장종결 방식에 대하여 형태 중심적 관점과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각 텍스트 장르별로 구축한 말뭉치 자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관찰하여 기술하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형태별 분석의 관점을 취한 4장에서는 중화체 문장의 종결형으로 나타난 여러 형태들의 의미 기능 및 형태통사적 특징을 기술하였고, 이들을 각각의 문장 유형과 대응시켜서 어떤 문장 유형이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를 문장종결형으로 취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으)ㄹ 것, -(으)라, -(으)ㅁ, -기, -(느)ㄴ가?, -나?, -(는/ㄴ)다, -도록, 서술명사, -어/아/여' 등의 형태가 중화체 문장의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이들 각각의 형태와 문장 유형의 대응쌍은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고 다대다 대응을 보이는 체계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장르별 분석의 관점을 취하였던 5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텍스트 장르들이 문체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자질들을 정리한 후에 이러한 자질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자질값을 가지는 각각의 장르들이 어떻게 다른 문체를 선택하는지를 관찰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 해당 텍스트 장르의 성격이 공적일 때, 메시지의 수용자를 특정하지 않을 때, 메시지의 수용자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정도가 약할 때, 그리고 메시지 수용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지 않을 때 중화체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수용

자를 전제하지 않는 독백적 장르의 경우에는 해당 텍스트의 속성이 공적이지 않아도 중화체가 선택되었다.

일상적인 쓰임이 많은 텍스트 문서를 위주로 하여 구축한 본 연구의 대상 말뭉치 자료에서는 화계가 중화되어 표현된 중화체 문장이 전체 문장의 약 74%를 차지하여서 오히려 화계가 표현되어 나타난 화계체 문장보다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의 문체법 체계에서 중화체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치부하고 문장종결형을 통해 화계의 등분이 표시되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 것으로 여겨 왔던 기존의 시각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일상적 문서 생활에서는 화계체보다 중화체가 더욱 고빈도로 사용된다. 그 빈도의 정도는 텍스트 장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화체가 언중의 일상적 문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둘째, 중화체 문장종결형은 크게 두 가지 다른 형태적 기원을 갖는 부류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하나는 서법어미의 비실현에 의해 화계를 중화시키는 부류이고 다른 하나는 화계가 중화된 서법어미에 의해 중화된 화계를 표시하는 부류이다. 전자에는 서술명사 및 명사형 종결형과 연결형 종결형 등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일명 '하라체'로 불려 왔던 문장종결형들이 속한다. 이들 양자는 형태적으로 화계를 중화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미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명사형이나 연결형 종결형들은 해당 형태의 매우 예외적인 쓰임으로 묶어 둔 채로 '-다, -자, -라, -나'의 네 가지 형태만을 문체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화체 평서형 문장의 종결형에는 '-(는/ㄴ)다', 서술 명사, '-(으)ㅁ',

‘-어/아/여’ 등이 있는데 ‘-(는/ㄴ)다’는 법률 및 규칙 장르처럼 텍스트의 내적 권위성이 높은 장르나 일기 등과 같이 자기 고백적 성격이 높은 장르에서 주로 쓰이며 요약적이고 간결한 뉘앙스가 요구되는 장르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요약적이며 간결한 표현이 요구되는 텍스트 장르에서는 서술 명사문이 주로 쓰이는데 서술 명사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인 ‘-(으)ㅁ’이 대체되어 쓰인다. 한편, ‘-어/아/여’는 신문 표제 장르에서만 그 쓰임이 발견되는데 이는 높은 경제성과 해당 기사와의 연결성이 요구된다는 것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중화체 명령문 문장의 종결형에는 ‘-기’, ‘-(으)ㄹ 것’, ‘-도록’, ‘-(으)라’ 등이 있는데 ‘-기’는 주로 화자 자신을 비실현 주어로 가지며 다짐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나머지 셋과 구별된다. ‘-(으)ㄹ 것’과 ‘-도록’은 대체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져서, 직접적이며 단호한 명령의 뉘앙스를 나타낸다. 다만,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의 종결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으)ㄹ 것’과는 달리 ‘-도록’은 명령의 의미만을 나타낼 수 있다. ‘-(으)라’의 경우에는 신문 표제나 업무 문서 등에서 주로 나타나면서 ‘-(으)ㄹ 것’이나 ‘-도록’과는 달리 명령 수행의 대상을 주로 주제어로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들 명령형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절차나 방식의 설명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화행을 위한 문장인 지시 명령문에서는 ‘-(는/ㄴ)다’가 주로 사용된다.

다섯째, 중화체 의문문의 종결형에는 ‘-(느)ㄴ가’와 ‘-나’가 있으며 이들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으나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여섯째, 텍스트가 문체를 선택하는데 고려되는 자질은 [±단절성], [±수용자 상정], [±매체 제약성], [±공공성]이 있으며 이중에서 [±수용자 상정]은 다시 [±수용자 특정성], [±수용자 지향성]의 하위 자질을 갖는다. 이 자질들 중 어떤 값을 취하는지는 해당 텍스트가 중화체 또는 화계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하며, 더불어 중화체 종결형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결형을

취할 것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를 통하여서 중화체의 각 종결형의 일부 용법에 대해서만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연구 경향은 한국어의 문체법을 기술하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중화체를 위한 본격적이며 입체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화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중화체 체계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이며 둘째는 중화체의 각 문장종결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이다. 첫 번째 논의가 숲을 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부류의 논의는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화체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는 양자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중화체의 중요한 위상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중화체의 문장종결형의 목록을 확정하였으며 나아가 중화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텍스트 장르의 특징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한 대상 말뭉치의 규모가 각 장르별로 4천에서 6천 어절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충분히 큰 규모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관찰을 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말뭉치 장르의 특성상 문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히 명사구로만 되어 있는 언어 형식의 비중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대상인 문장종결형이 드러나 있는 문장의 빈도는 어절 수를 기준으로 한 말뭉치 규모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기본 문장 유형 중에서 청유형이나 감탄형의 문장이 검색되지 않은 등의 문제도 이러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 보다 큰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이를 대상으로 면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한국어의 중화체의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강범모(1999),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범모·김흥규·허명희(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강현화(2008), 「어휘접근적 문법교수를 위한 표현문형의 화행기능 분석」,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강현화· 이미혜(2011), 『한국어교육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강현화· 홍혜란(2010), 「한국어 종결표현의 화행 기능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 Education』, 17-2, 한국외국어교육학회.

고성환(2003), 『국어 명령문에 대한 연구』, 역락.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10-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고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고영근(2002), 『텍스트이론 :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문법론』, 태학사.

권순희(2005), 『청자지향적 관점의 표현 교육』, 역락.

권재일(1981), 「현대국어의 {기}-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글』, 171, 한글학회.

권재일(1986), 「문법범주의 실현 방법과 국어의 특징」, 『배달말』, 11-1,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김영희(1984), 「"하다"」, 『배달말』, 9-1,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김일환(2005), 「명사형 어미의 의미 재고」, 『형태론』, 7-2, 도서출판 박이정.

김일환· 박종원(2003), 「국어 명사화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42, 국어학회.

김주미(1992), 「현대국어 서술씨끝 연구」, 김승곤 편,『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학술자료사.

김태엽(1997), 「국어의 문장 종결소」, 『대구어문론총』, 15, 우리말글학회.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김태엽(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혜정(1997), 「신문 표제어의 텍스트 양상 연구」, 『선청어문』, 2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흥수(1995), 「명사화의 담화 기능과 문체 양상」, 『어문학논총』, 1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남기심(1971), 「인용문의 구조와 성격」, 『동박학지』, 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남기심(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탑출판사.

남기심(2001), 『현대국어통사론』, 태학사.

남기심· 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길임· 송재영(2007), 「'(X)+하다'의 활용 형태의 축약 현상 연구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한글』, 278, 한글학회.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민경모(2000), 『국어 어말어미류의 텍스트 장르별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경모(2010), 「서법 구현 형식에 대한 일고찰 -서법 범주의 수용과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갑수· 이주행· 이석주(1990), 『신문 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박금자(1987), 「국어의 명령표현 연구」, 『관악어문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상규· 한영균(1999), 『국어정보학 입문』, 태학사.
심재기(1980), 「명사화의 의미기능」, 『언어』, 5-1, 언어학회.
안병길(2002), 「담화유형, 텍스트유형 및 장르」, 『현대영미어문학』, 20-2, 현대영미어문학회.
우형식(1987), 「명사화소 '-(으)ㅁ', '-기'의 분포와 의미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2-1,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
유현경(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한글학회.
윤석민(1995), 「현대국어 문장종결형 연구(1) -설명법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이선웅(2009), 「대중매체 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이유기(2000), 「현대국어의 문체법」, 『한국어문학연구』, 3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이현희(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국어학회.

임동훈(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47, 국어학회.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임홍빈(1984), 「문장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원.
장경현(2010), 『국어 문장 종결부의 문체』, 역락.
장경희(1994), 「문체와 의미」, 박갑수편(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정여훈(2006), 「신문 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 『사회언어학』, 14-1, 한국사회언어학회.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함계임(2009), 「직업 목적 한국어의 문체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업무문서 쓰기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5-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허웅(1983), 『국어학 -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홍종선(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홍종선(1986), 『국어 체언화 구문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병순(2004), 「한정 명사절과 비한정 명사절」, 『배달말』, 34,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Biber, D.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H. D. (2000), Teaching by Principles, Englewood Clifs, NJ: Printice-Hall.
Carol Myers-Scotton(2000), Code-switching as indexical of social negotiations, The bilingualism Reader, Routledge.
Fergason(1994), Dialect, register, and genre: working assumptions

about conventionalization, In Biber, D,, Finegan, E. (1994)
Swales, J.(1990),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 Heinemann & D. Viehweger(1991), Textlinguistik: eine Einführung, 백설자 역(2001), 『텍스트언어학 입문』, 역락.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네이버 블로그 http://section.blog.naver.com
네이트 블로그 http://blog.cyworld.com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ttp://web.yonsei.ac.kr/kor
연세대학교 규정집 http://www2.yonsei.ac.kr/rule/new/default.asp
연세대학교 대학원 http://graduate.yonsei.ac.kr
연세대학교 취업정보센터 http://career.yonsei.ac.kr

ABSTRACT

Neutralized Style in Korean
-Focusing on Genre Analysis of Everyday Written Text-

Nam, Sin-Hy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eutralized style in Korean, which expresses neutralized speech level related to addressees. Sentence final forms in Korean are widely known to have a particular speech level, but when looking at the text genre closely related to everyday life, a neutralized style is easily found.

There are largely two specific goals for this study. First, to build a system of Korean neutralized style through listing the sentence final forms that are used for neutralized style by sentence types, and state both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Second, to figure out what kind of text genres select neutralized style for their sentences, and the reason for such selections.

So a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adhered to the following

layout.

First of all, chapter 1 stated the necessity, aim and the organization of this study. Then, chapter 2 summarized previous studie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Nextly, chapter 3 presented selected text genres and the corpus data that was collected for this study. The methodology of the analysis was also added. Then chapters 4 and 5 st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rom among the two, chapter 4 contained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in a morphological perspective, while chapter 5 showed the results from a perspective of genre analysis.

In the morphological analysis in chapter 4, all of the sentence final forms used for neutralized style in the corpus data were extracted by priority. Then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and senses, functions, and morphosyntactic characteristics of each form for neutralized style were examined.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sentence final forms for neutralized style was as high as 74%, demonstrating the fact that the position of neutralized style in Korean is very important. Meanwhile, in the result of allotment for each sentence type, '-(nun/n)ta', declarative nouns, '-(u)m', and '-e/a/ye' alloted to declarative, '-(nun/n)ka', '-na' alloted to interrogative, and also '-ki', '-(u)l kes', '-tolok', '-(u)la' alloted to imperative. Additionally, '-(nun/n)ta' was alloted to indicative imperative, which was a special sentence type functioning differently from normal imperative.

For the analysis by genre, chapter 5 examined the extent of use of neutralized style, and also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on particular

sentence final forms in each text genre. For these examinations, the style selection features that decide the style for each text was used as a tool of th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oth the frequency of neutralized style and preferred neutralized form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tyle selection features of each text genre; Neutralized style tends to be selected when the text genre has [+formal], [- specified addressee], [-addressee oriented], and [+disconnection] for its style selection features.

Finally, chapter 6 summari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stated.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found the important position of neutralized style in Korean, listed the sentence final forms for each neutralized sentence types, and found the style selection features highly related to neutralized style. However, this study also has its limitations in that the size of the corpus data was not big enough to find every form for neutralized style.

Key Words : Neutralized style, Style, Sentence final forms, Sentence types, Text genres, Speech level